

SESSION 1

유한킴벌리 Giving Index : 2005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결과 발표 & 유럽의 기부문화 전통 및 현황 발표

유한킴벌리 GIVING INDEX : 2005년도 한국인의 기부지수

- 조사기관 (주) 리서치 앤 리서치
- 조사설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
- 연구자 강철희 (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)

유한킴벌리 Giving Index 2005년도 조사결과 보고서

제 1 장. 조사개요

1. 조사의 목적
2. 조사의 설계 및 진행
3. 표본추출방법
4. 응답자 특성표
5. 통계표 보는 법

제 2 장. 조사결과 요약

제 3 장. 조사결과 분석

1. 2005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
2. 2005년 기부 참여 여부
3. 기부의 이유
4. 기부동기 외에 기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
5. 기부하지 않은 이유(비기부자 한정)
6. 향후 1년 내 기부 의향
7. 기부참여 결정 시 고려사항
8. 단체/시설/기관 기부시 고려사항
9. 기부금 사용 희망 분야
10. 기부시 문제해결 희망 단위(범위)
11. 유산 일부 기부 의향
12. 유/초/중/고등학교 시절 경험
13. 나눔 교육 동의 정도
14.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기여 및 역할에 대한 인식
15.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
16. 민간이 참여(나눔실천)하여 해결이 필요한 문제
17. 시설/기관/단체별 신뢰도
18. 2005년 배우자 자원봉사활동 시간
19. 2005년 배우자 기부 금액

1. 조사의 목적

2005년 우리나라 국민의 기부 및 자원봉사 실태와 이에 대한 인식태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, 향후 기부활동 관련 정책방안 모색 시 기초 자료로 활용

2. 조사의 설계 및 진행

조 사 대 상	■ 전국(제주 제외) 만19세 이상 성인남녀
표 본 수	■ 1,005명
표 본 오 차	■ 95% 신뢰수준에서 ±3.09%포인트
조 사 방 법	■ 면접조사(<i>face-to-face interview</i>)
표 본 추 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1단계 : 다단계 지역추출법 - 조사지점 선정 ■ 2단계 : 할당표본추출법 - 응답자 선정 ↳ '3절. 표본추출방법' 에서 별도 설명
조 사 기 간	■ 2006년 7월 10일 ~ 8월 11일
조 사 기 관	■ (주)리서치 앤 리서치(R&R; 대표 노규형)

3. 표본추출방법

1단계 : 다단계 지역표본추출법(multi-stage area sampling)

■ 지역별 층화

- 전국을 7개 광역시와 8개 도(제주도 제외)로 나누고, 도는 다시 시, 읍, 면으로 층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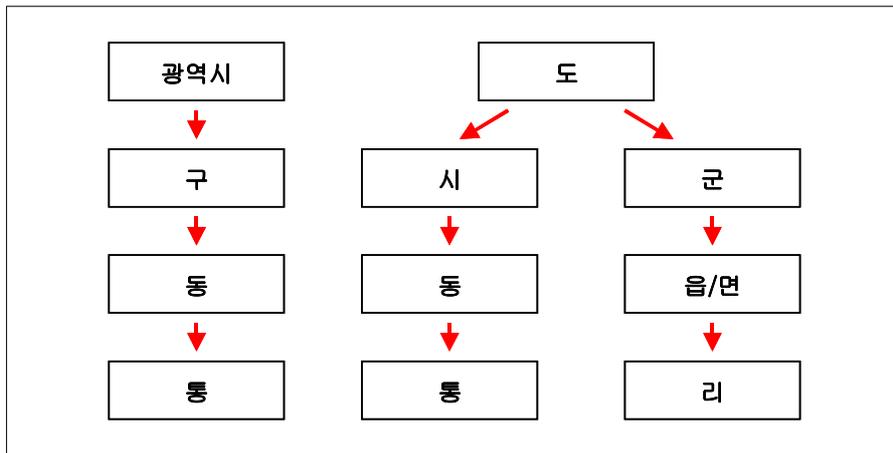
■ 인구수 비례 할당

- 층화된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, 지역 당 조사지점(sampling point)의 수 계산(조사지점당 10명 조사 원칙).

■ 다단계 지역표본추출

-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조사지점인 통/리를 무작위로 선정

☞ 이러한 과정은 R&R Sampler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짐



2단계 : 할당표본추출법(quota sampling)

■ 최종 응답자는 조사지점에서 성별·연령대별 인구비례 층화할당을 통해 선정.

4. 응답자 특성표

전 체		사례수	%
		1,005	100.0%
성 별	남 자	496	49.4%
	여 자	509	50.6%
연 령	1 9 ~ 2 9 세	223	22.2%
	3 0 대	240	23.9%
	4 0 대	227	22.6%
	5 0 대 이 상	315	31.3%
학 력	중 졸 이 하	148	14.8%
	고 졸	416	41.4%
	대 재 이 상	436	43.4%
직 업	농 / 임 / 어 업	21	2.1%
	자 영 업	255	25.4%
	블 루 칼 라	191	19.0%
	화 이 트 칼 라	279	27.8%
	주 부	147	14.6%
	학 생	84	8.4%
	무 직 / 기 타	27	2.7%
거 주 지	서 울	218	21.7%
	인 천 / 경 기	271	27.0%
	부 산 / 울 산 / 경 남	166	16.5%
	대 구 / 경 북	109	10.8%
	광 주 / 전 라	108	10.7%
	대 전 / 충 청	103	10.2%
	강 원	30	3.0%
거 주 지 규모	대 도 시	483	48.1%
	중 소 도 시	336	33.4%
	읍 / 면 지 역	186	18.5%
결 혼 상 태	미 혼	259	25.8%
	기 혼	692	68.9%
	이 혼 / 사 별	52	5.2%

GIVING KOREA 2006

전 체		사례수	%
		1,005	100.0%
종 교	불 교	223	22.2%
	기 독 교	219	21.8%
	천 주 교	90	9.0%
	기 타	3	0.3%
	없 음	460	45.5%
개 인 소 득	4 9 만 원 이 하	249	24.8%
	5 0 ~ 9 9 만 원	85	8.4%
	1 0 0 ~ 1 9 9 만 원	301	30.0%
	2 0 0 만 원 이 상	367	36.6%
	모 름	2	0.2%
가 구 소 득	9 9 만 원 이 하	32	3.2%
	1 0 0 ~ 1 9 9 만 원	141	14.0%
	2 0 0 ~ 2 9 9 만 원	270	26.9%
	3 0 0 만 원 이 상	558	55.6%
	모 름 / 무 응 답	4	0.4%
거 주 형 태	자 가	780	77.6%
	전 세	194	19.3%
	월 세 / 기 타	32	3.2%
가 구 원 수	1 명	61	6.1%
	2 명	124	12.3%
	3 명	195	19.4%
	4 명	461	45.8%
	5 명 이 상	165	16.4%

조사결과 요약

▣ 2005년 기부

- ▶ 기부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68.6%로 전체의 3분의 2 가까이 나타남. 이는 2001년(48.0%), 2003년(64.3%)보다 상승한 수치임.
- ▶ 2005년 국민 1인당 종교적 기부를 제외한 기부 금액(물품포함)은 평균 70,305원으로 2003년(57,859원)보다 약 21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▶ 기부 경험자에 한정할 경우, 2005년도 '건수별' 기부 금액은 58,490원, '개인별' 기부 금액은 102,550원으로 나타나, 2003년(각각 61,860원, 90,401원)과 비교할 때 건수별 금액은 다소 감소하였으나, 개인별 기부금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- ▶ 올해 새롭게 추가된 조사 항목인 경조사비 지출에 관한 응답은, 2005년 경조사비 지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74.2%였으며, 경조사비 비용은 20~49만원(39.2%)이 가장 많이 나타나, 경조사비 지출 규모가 자선적 기부액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남.

▣ 2005년 자원봉사활동

- ▶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05년 24.7%로 2003년(16.8%)보다 증가하였음.
- ▶ 2005년 국민 1인당 종교적 봉사활동을 제외한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9.58시간으로 2003년의 7.38시간보다 29.8% 증가한 수치를 보임.
- ▶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한정하면, 2005년 '건수별' 자원봉사활동 평균 시간은 26시간으로, '개인별' 자원봉사활동 평균 시간은 38.8시간이었음. 이는 2003년(건수별: 34.3시간, 개인별: 44.7시간)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임.

▣ 나눔교육 및 유산 기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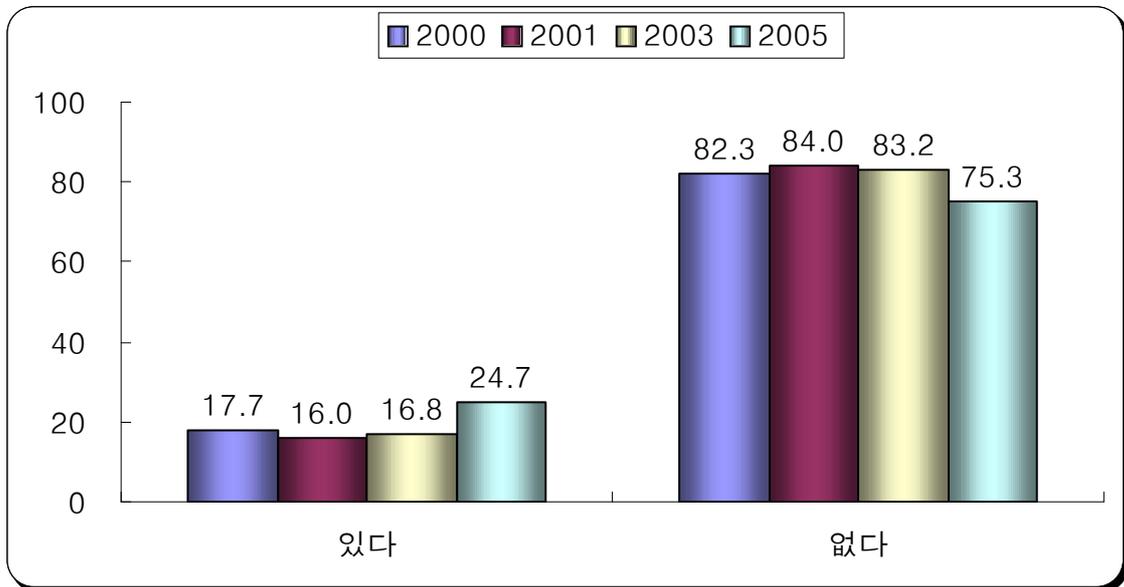
- ▶ 나눔교육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, 96.4%가 '나눔교육이 중요하다' 고 응답하였음.
- ▶ 나눔교육이 이루어지는 경로에 대한 동의 정도에 있어서는 '언론/방송에서 나눔실천 프로그램 / 캠페인 이루어져야' 한다는 의견이 96.1%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'나눔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져야' (93.7%), '나눔교육 부모 / 가족 내에서 이루어져야' (91.9%), '나눔실천 강조 직장 내에서 이루어져야' (87.1%) 순으로 나타남.
- ▶ 한편, 유산의 일부를 기부할 의향에 대한 응답은 '있다' 가 25.7%, '없다' 는 응답이 68.8%로 나왔고 전체 유산의 어느 정도를 기부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'10%이상~30%미만' 이라는 응답이 27.0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
조사결과 분석

1. 2005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

문) 귀하는 작년 한 해 즉 2005년 1월부터 12월 사이 [보기카드 1과 같은 곳에서] '자원봉사활동'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?

- 2005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'(참여한 적이) 있다'가 24.7%로 나타남.
 - 2001년 16.0%, 2003년 16.8%에 비해 2005년도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.


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'(참여한 적이) 있다' 는 응답은 40대(30.6%), 학생(35.7%), 부산/울산/경남 거주자(31.3%), 기독교(31.0%) 및 천주교(36.8%) 신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'없다' 는 응답은 중졸 이하(82.1%), 무신론자(82.2%), 가구소득 100만원~199만원 이하(82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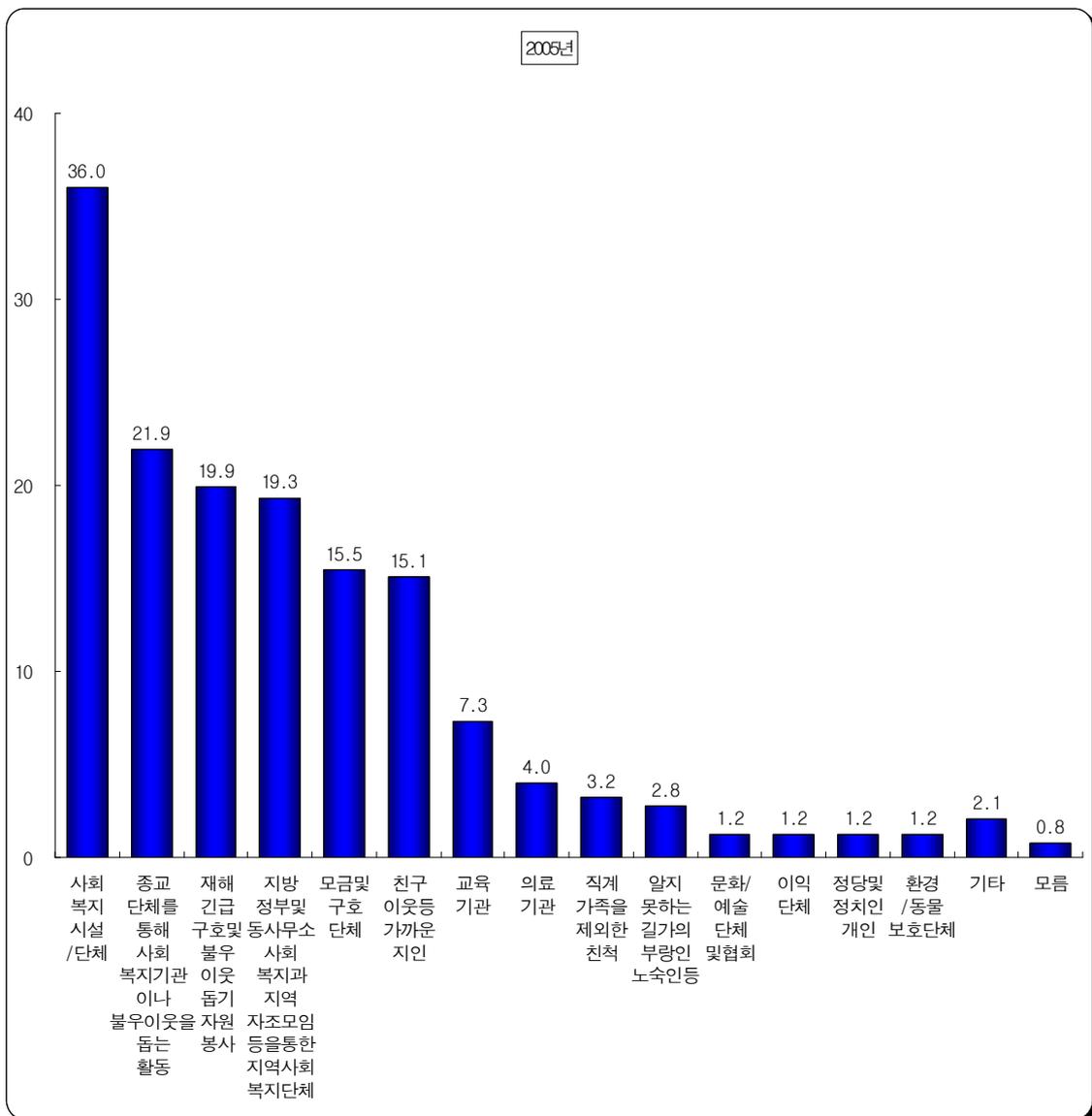
1-1. 2005년 자원봉사활동 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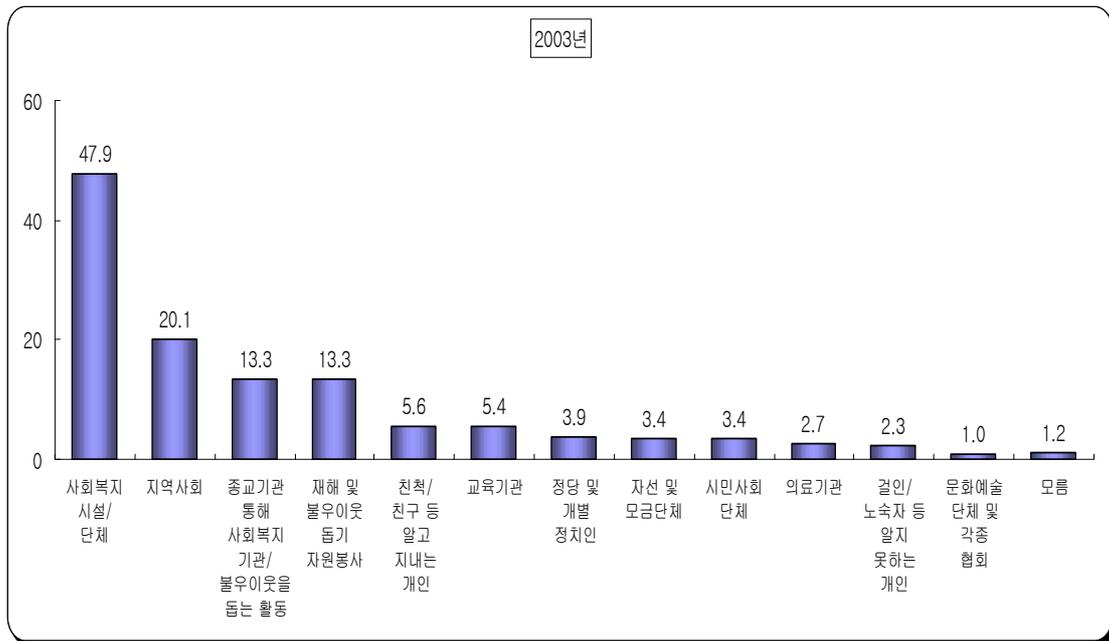
문)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(2005년 1월~12월) ‘자원봉사활동’ 을 한 시설/기관/단체/개인을 모두 말
 씌해주십시오.

● 자원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는 응답자 247명의 자원봉사활동 장소로는 ‘사회복지시설/단체’ (36.0%)가 가장 높았고, ‘종교단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’ (21.9%)이 두 번째로 높았음 (중복응답; n=247).

- 한편, ‘사회복지 시설/단체’ 는 2003년(47.9%)에도 가장 높은 자원봉사 장소로 나타난 바 있음.

☞ [참고] 본 조사의 설문은 회의를 통해 2004년 조사의 설문에서 다소 수정되었음. 이와 같이 수정된 설문항은 기존조사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 판단되어, 그래프를 제시할 때 본 조사 결과와 기존조사 결과를 각각 분리하여 제시함. 이는 본 문항을 포함하여, 모든 문항에 적용됨.




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‘사회복지 시설/단체’ 는 20대(55.3%), 대재이상(44.3%), 학생(56.9%), 인천/경기(49.2%) 거주자, 미혼자(50.9%), 개인소득 49만원 이하(46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‘종교단체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을 돕는 활동’ 은 인천/경기지역 거주자(35.1%), 기독교(40.7%) 및 천주교(47.9%) 신자, 가구소득 99만원 이하(59.7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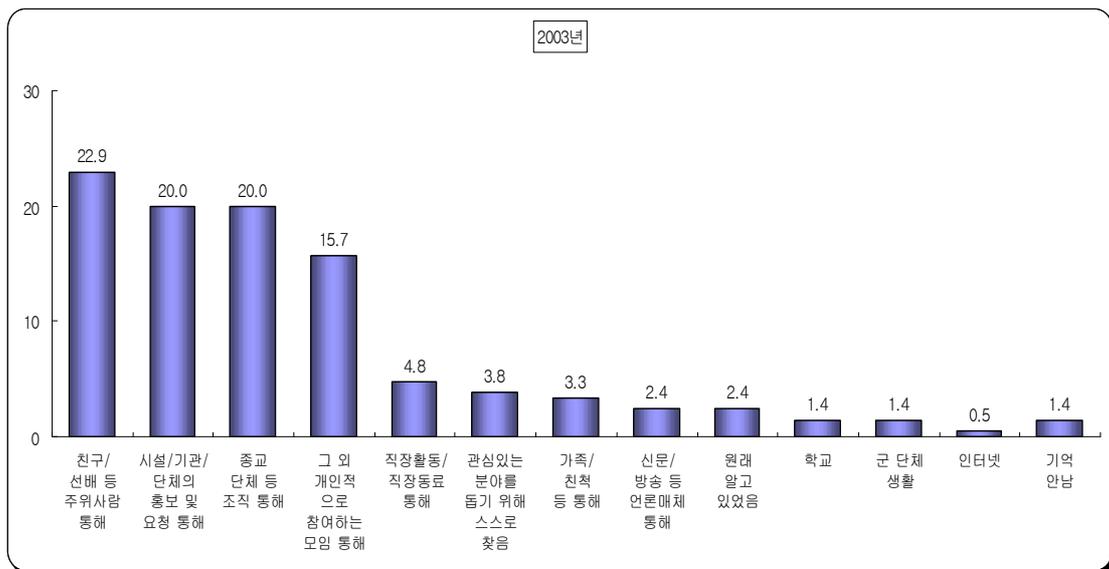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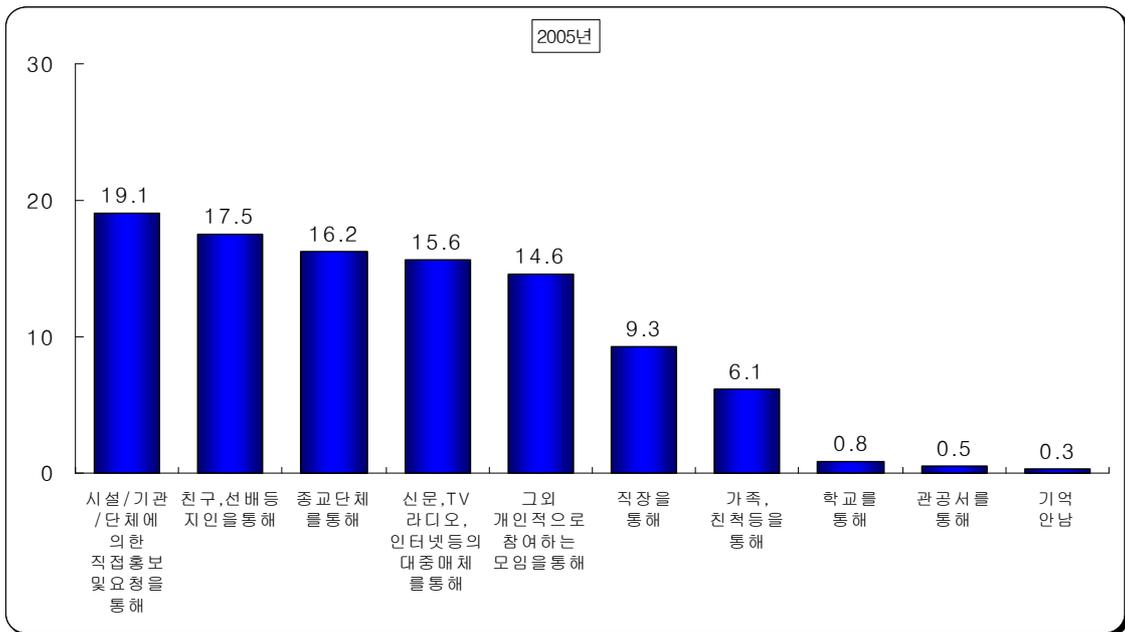
1-2. 2005년 자원봉사활동 장소 인지 경로

문) 그 ‘시설/기관/단체/개인’ 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? 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하나씩만 말 씀해주십시오.

- 자원봉사활동 장소를 알게 된 경로로는 ‘시설/기관/단체에 의한 직접 홍보 및 요청을 통해서’ 가 19.1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‘친구, 선배 등 지인을 통해서’ (17.5%), ‘종교단체를 통해서’ (16.2%) 등이 뒤를 이음(response base; n=377).

☞ [참고] response base란 모르겠다, 무응답 등을 제외하고, 응답이 나온 총 항목 수를 기준(분모)으로 하여 각각의 응답(분자)들을 나누어 계산함. 본 문항에서 응답 나온 총 항목 수는 377개임.

GIVING KOREA 2006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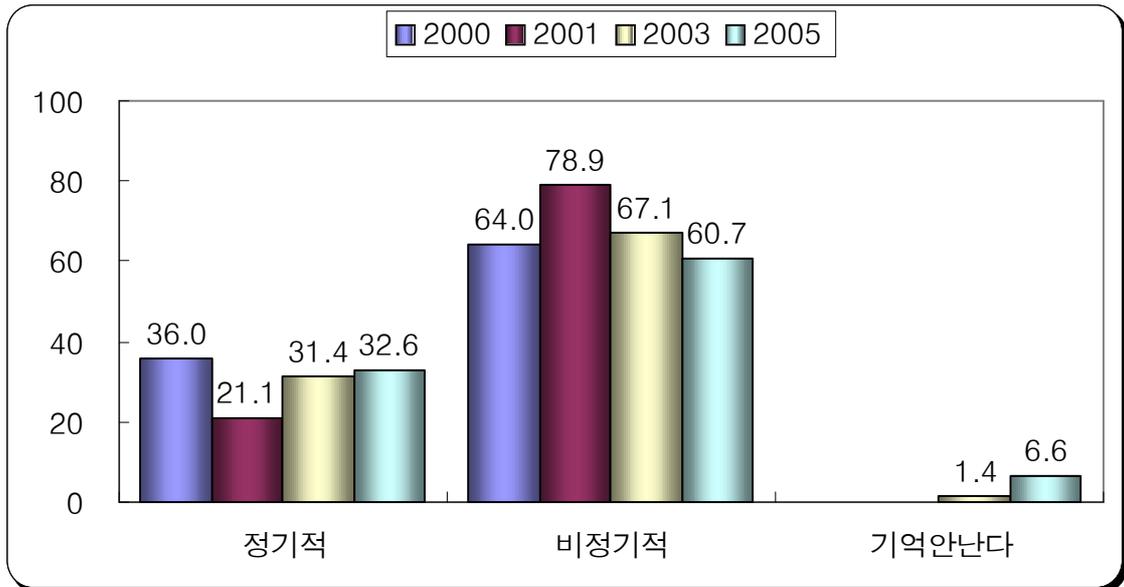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'시설/기관/단체에 의한 직접홍보 및 요청을 통해서' 라는 응답은 50대 이상(32.1%), 주부(27.6%), 서울(28.2%), 광주/전라(33.3%) 및 대전/충청(35.7%) 거주자, 대도시(24.8%) 거주자, 불교(29.3%), 가구소득 200만원 ~ 299만원(26.8%), 거주형태는 자가(21.5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- ▷ '친구나 선배 등 지인을 통해서' 라는 응답은 대재이상(21.8%), 대도시(22.4%) 거주자, 미혼자(25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- ▷ '신문, TV,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' 라는 응답은 인천/경기 거주자(36.8%), 거주형태 자가(18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1-3. 2005년 자원봉사활동 정기성 여부

문) 그 시설/기관/단체/개인에 대한 '자원봉사활동' 은 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?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?

- 자원봉사활동의 정기성 여부를 묻은 결과, '정기적' 이 32.6%로 나타남(response base; n=377).
- 본 조사의 정기적 봉사 비율(32.6%)이 2001년 조사(31.4%)보다 높게 나타남.


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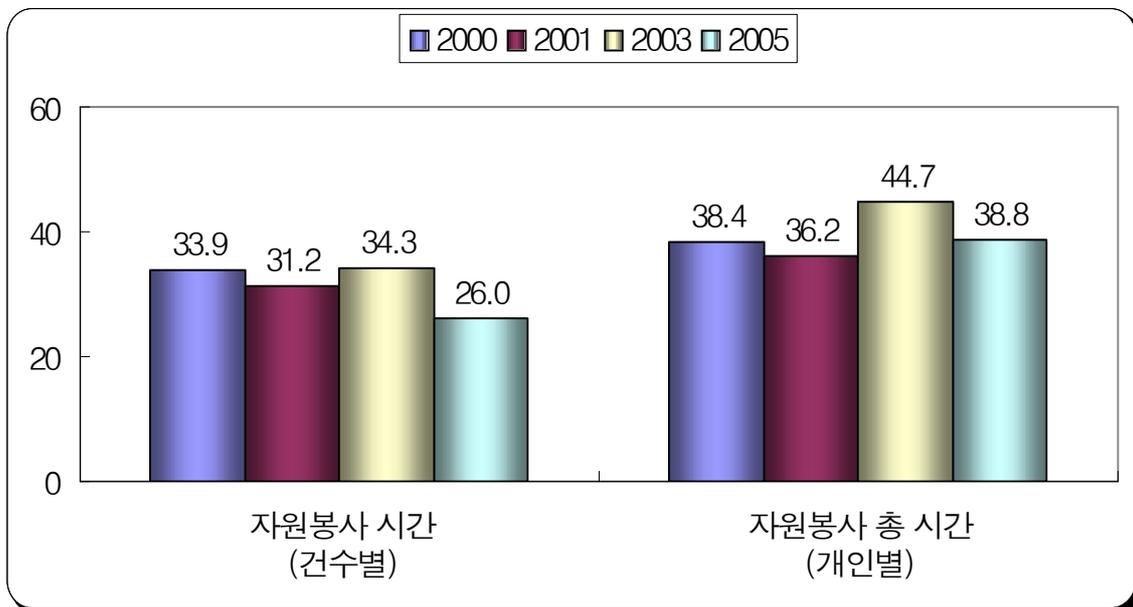
- ▷ '정기적' 이라는 응답은 기혼자(35.7%), 개인소득 200만원 이상(40.4%),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(37.1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.
- ▷ '비정기적' 이라는 응답은 학생(81.6%), 대전/충청(82.1%) 거주자, 읍/면 거주자(73.2%), 미혼자(73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1-4. 2005년 자원봉사활동 시간

문) 작년 한 해 동안(2005년 1월~12월) 그 시설/기관/단체/개인에게 ‘자원봉사활동’ 을 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?

● 참여자에 한정할 경우, ‘자원봉사활동 건수별’ 평균시간은 “26.0시간” 으로 2003년(34.3시간)보다 8.3시간 감소하였고, ‘개인별 자원봉사활동’ 평균시간은 “38.8시간” 으로 2003년(44.7시간)보다 5.9시간 감소하였음.

- 국민 1인당 자원봉사활동 평균시간은 “9.58시간” 으로 2003년 “7.38시간” 보다 27.6% 증가하였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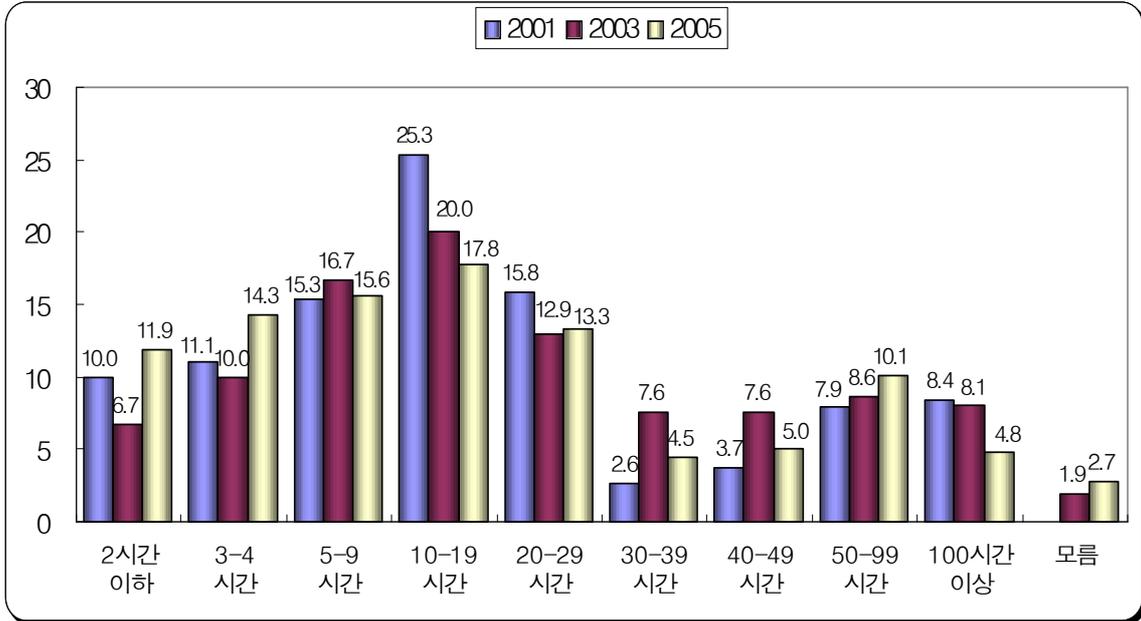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자원봉사활동 평균시간
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▷ ‘개인별’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인천/경기(53.0시간)지역 거주자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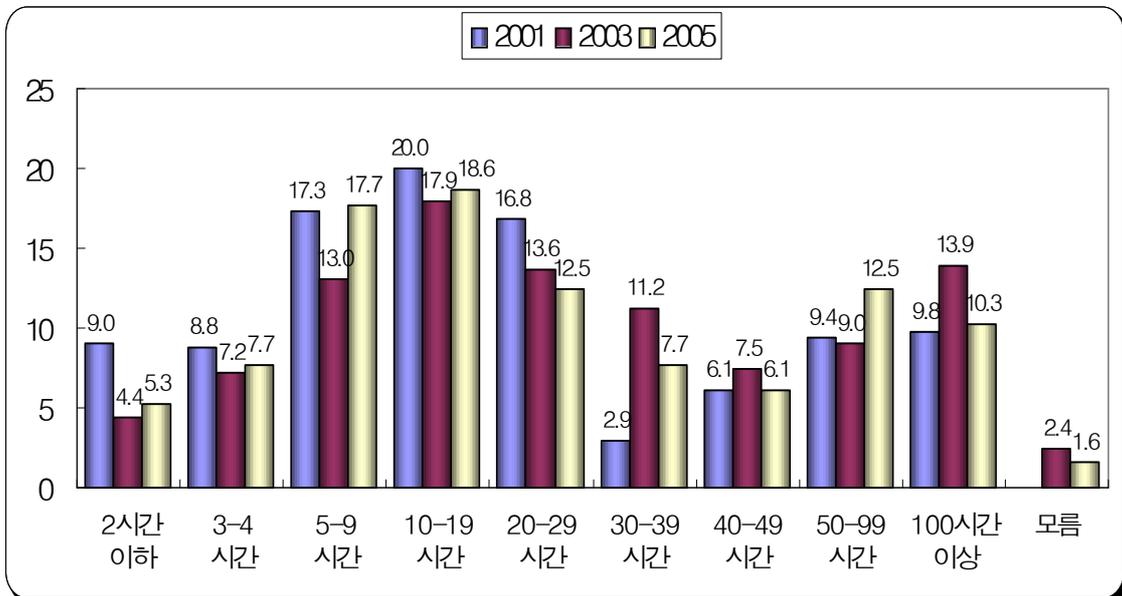
GIVING KOREA 2006

● 한편, 건수별로는 ‘10~19시간’ 이 17.8%로 가장 높았고, ‘5~9시간’ 이 15.6%로 두 번째로 높았음.



<그림> 자원봉사활동 시간(건수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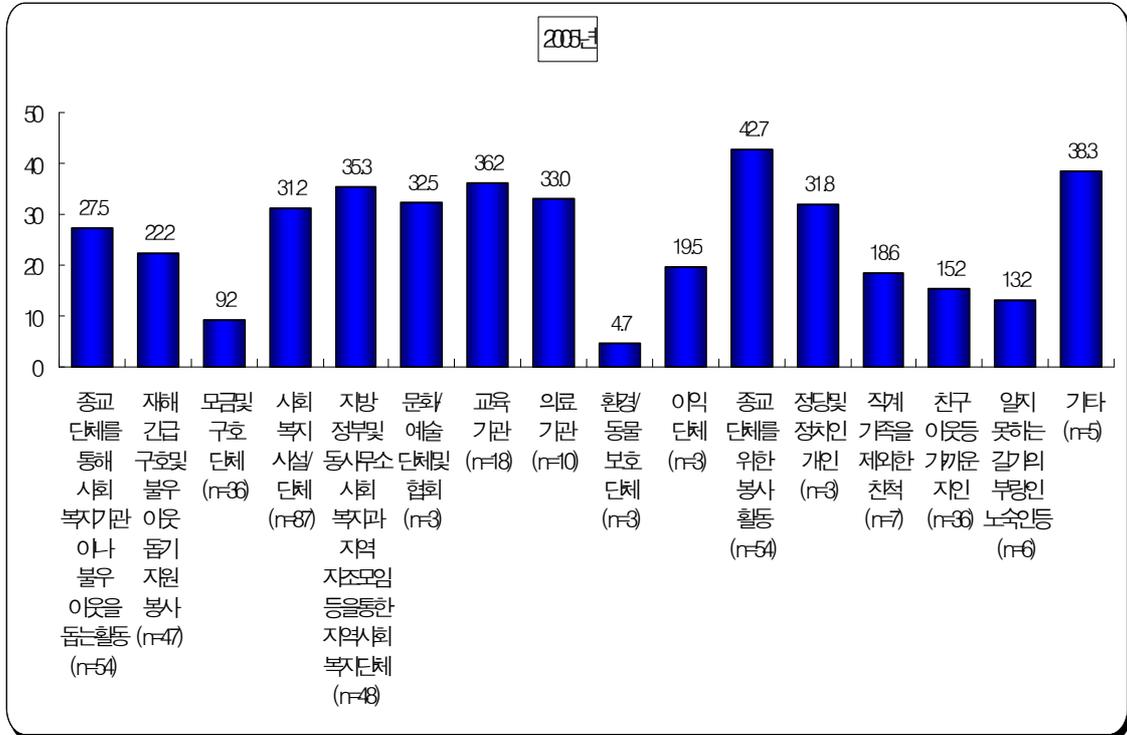
●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의 개인별 평균시간을 살펴보면, ‘10~19시간’ 이 18.6%로 가장 높았고, 이어서 ‘5~9시간’ (17.7%), ‘20~29시간’ 및 ‘50에서 99시간’ (12.5%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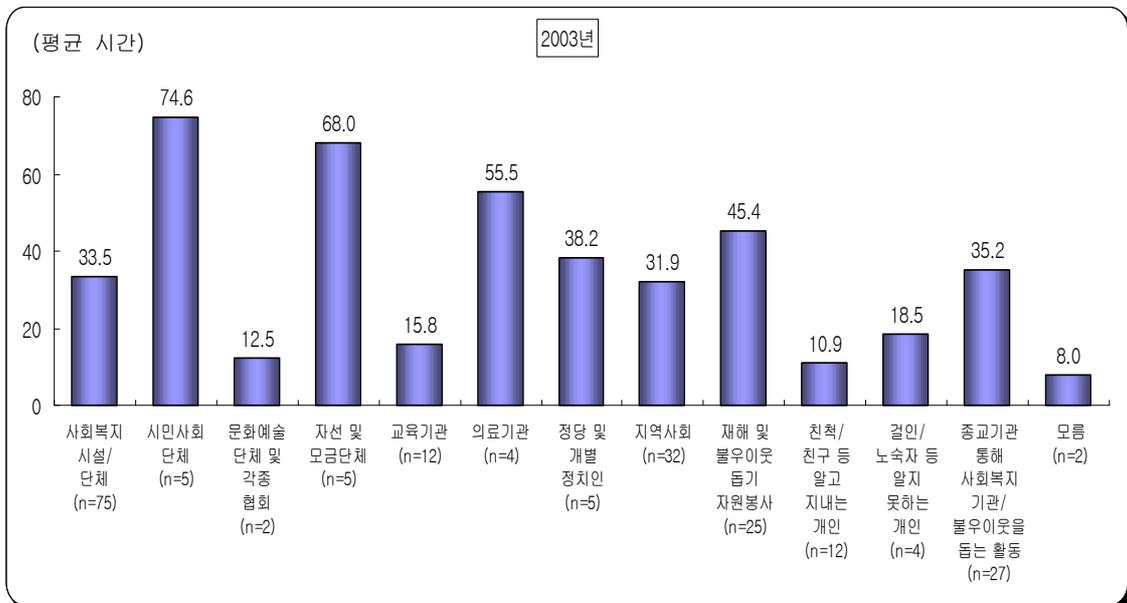
<그림> 자원봉사활동 시간(개인별)

GIVING KOREA 2006

- 자원봉사처별로 살펴보면, ‘종교단체를 위한 자원봉사활동’ (n=244) 38.8시간, ‘교육기관’ (n=18) 36.0시간, ‘지방정부 및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지역자조모임등을 통한 지역사회복지단체’ (n=45) 35.4시간, ‘사회복지시설/단체’ (n=87) 31.8시간 등으로 나타남.
- 여타 봉사처의 경우 표본수가 10미만으로 상당히 적어,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려움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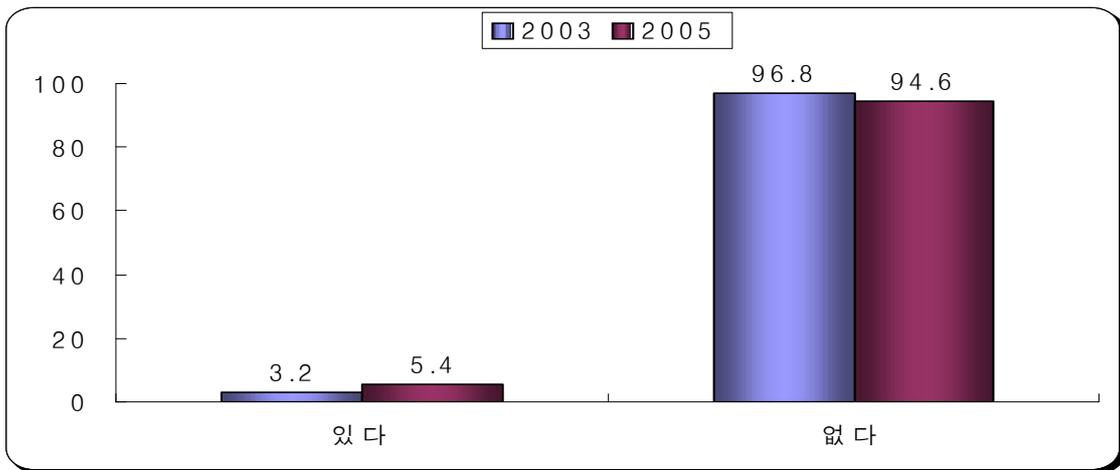
<그림> 자원봉사처별 활동시간(평균)



1-5. 2005년 종교기관 봉사활동 참여율 및 참여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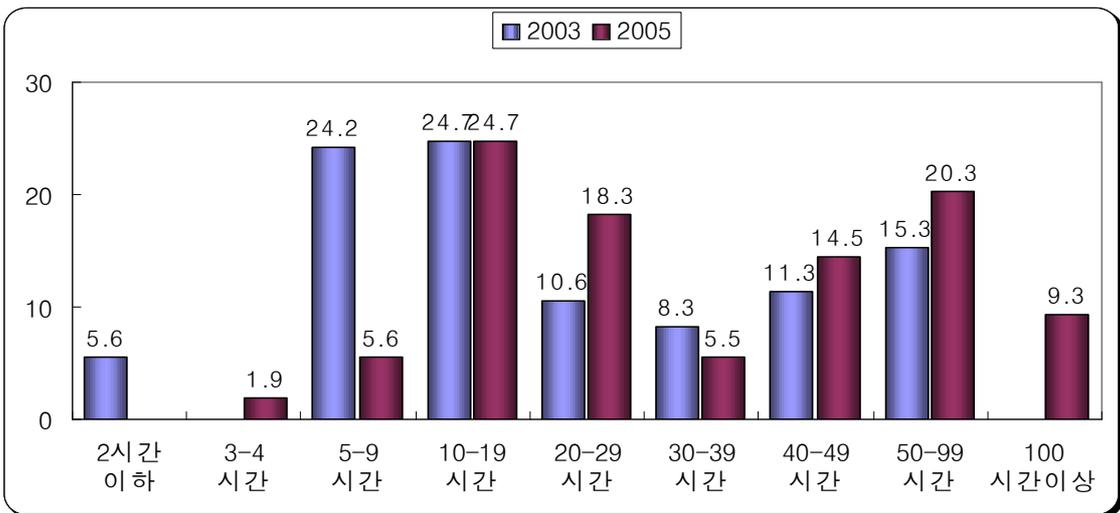
문) 작년 한 해 동안(2005년 1월~12월) 종교기관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?
 문) 작년 한 해 동안(2005년 1월~12월) 그 종교기관에게 '자원봉사활동' 을 한 시간은 모두 몇 시간이 나 되십니까?

- 2005년에 종교단체를 위한 봉사활동을 한 적이 '있다' 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1,005명 중 5.4%로 작년보다 2.2% 포인트가 증가되었음.



<그림> 종교기관 봉사활동 참여율

- 종교단체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54명에 한정하여 참여시간을 살펴보면, '10~19시간' (24.7%)과 '50~99시간' (20.3%)이 높게 나타남(n=54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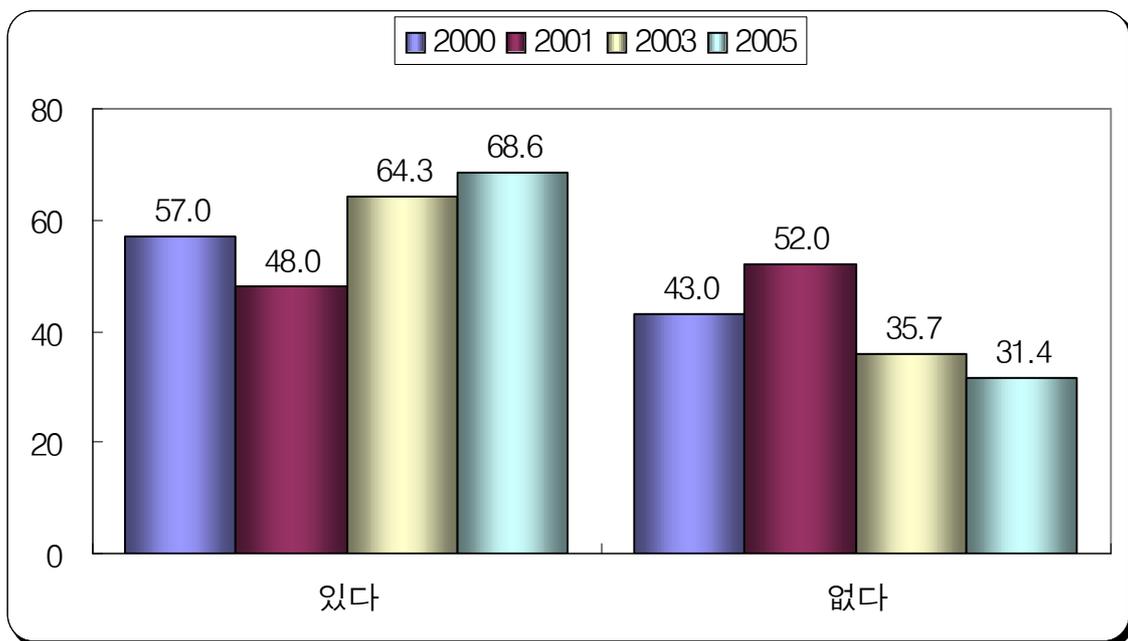


<그림> 종교기관 봉사활동 참여시간

2. 2005년 기부 참여 여부

문) 귀하는 작년 한 해 즉 2005년 1월부터 12월 사이 [보기카드 2와 같은 곳에] '기부' 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? ARS전화를 통한 기부, 적십자회비, 물품 기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 또한 시설/기관/단체 뿐 아니라, 직계가족(부모, 형제 등)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걸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신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. 광범위하게 생각하십시오.

- 2005년 기부를 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'있다' 는 응답이 68.6%로 나타남.
 - 이는 2001년(48.0%)과 2003년(64.3%) 조사에 비해 각각 20.6%포인트 및 4.3%포인트가 증가한 것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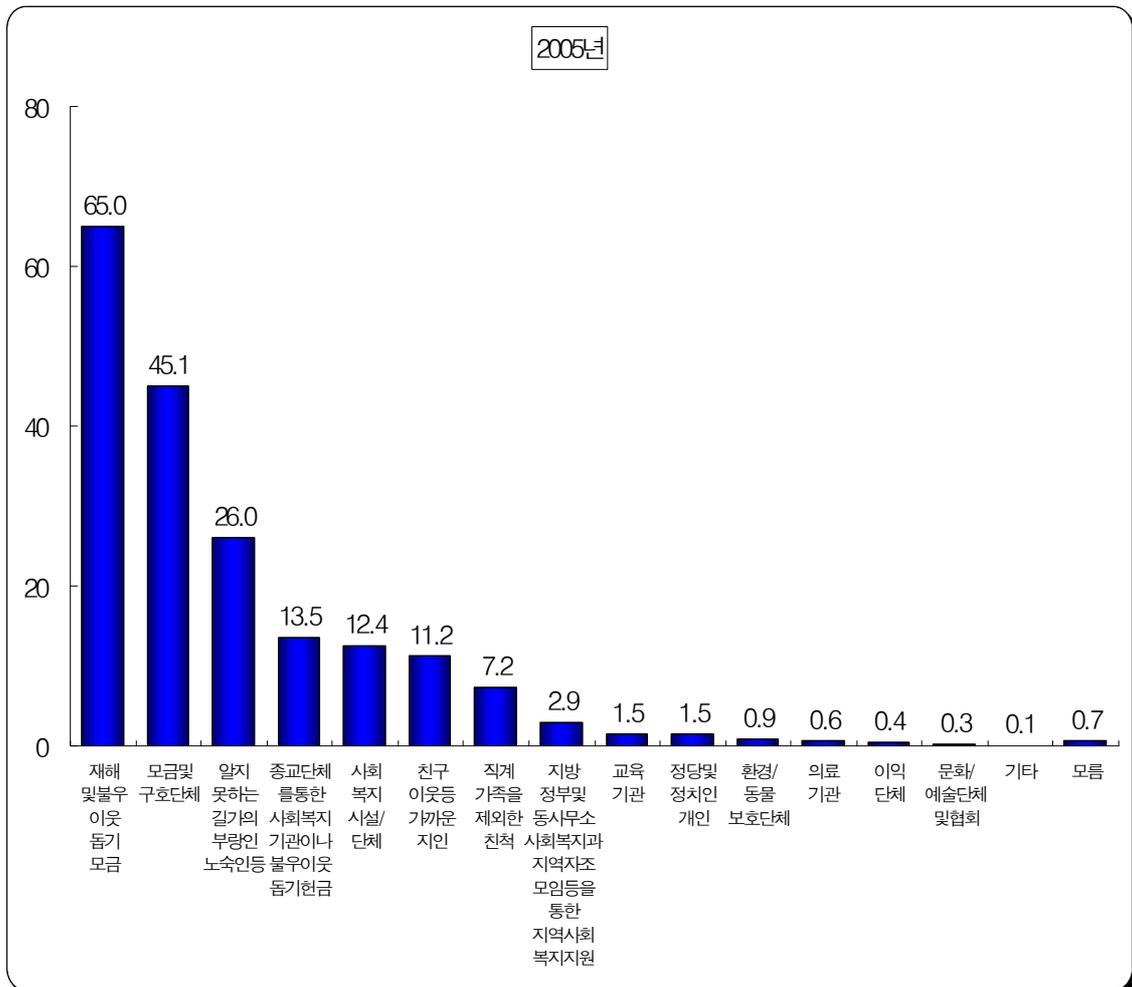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'있다' 는 응답은 여성(71.7%), 40대(74.6%), 자영업(76.2%) 및 화이트칼라(74.1%) 종사자, 인천/경기 거주자(77.6%), 기혼자(72.4%), 개인소득 200만원 이상(75.1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'없다' 는 응답은 남성(34.7%), 20대(43.2%), 학생(53.5%), 서울(37.2%) 및 대전/충청 거주자(43.0%), 미혼자(43.0%), 무신론자(36.2%), 개인소득 49만원 이하(40.9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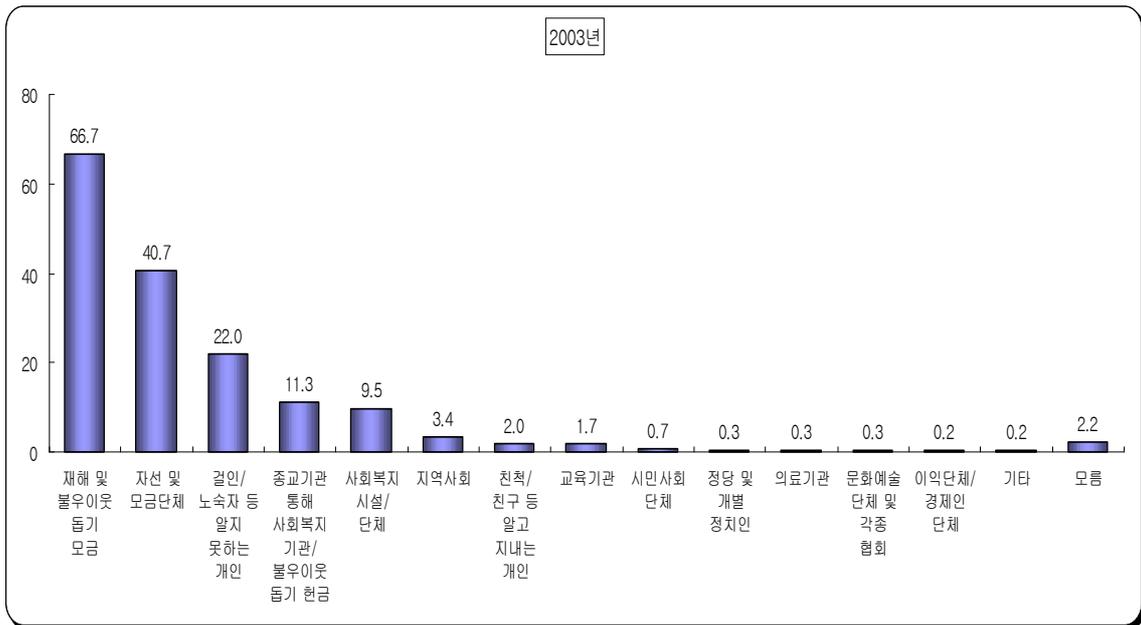
2-1. 2005년 기부처

문) 귀하가 작년 한 해 동안(2005년 1월~12월) '기부 활동' 을 한 시설/기관/단체/개인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.

- 기부 참여자 688명이 기부한 곳으로는 '재해 및 불우이웃 돕기 모금' 이 65.0%로 가장 높았고, '모금 및 구호단체' (45.1%), '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, 노숙인등' (26.0%)의 순으로 뒤를 이었음 (n=688).



GIVING KOREA 2006


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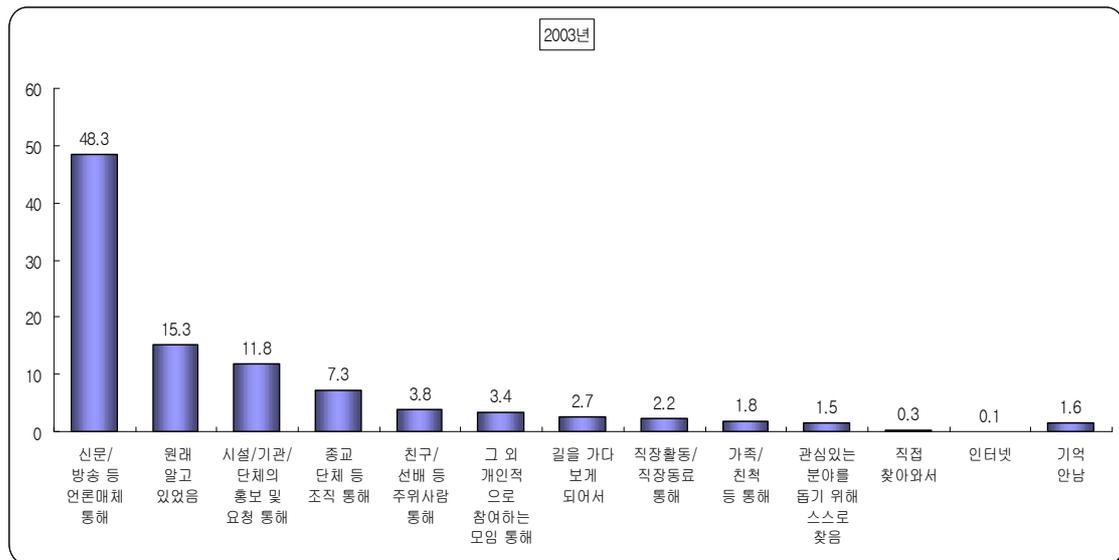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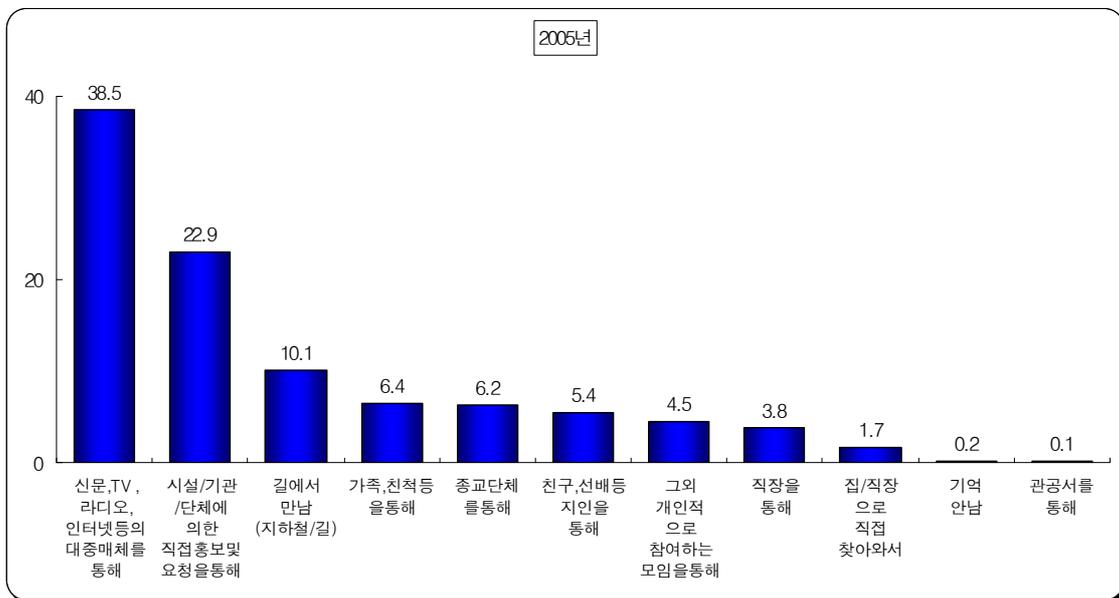
- ▷ '재해 및 불우이웃 돕기 모금' 은 30대(73.5%), 화이트칼라(70.7%), 부산/울산/경남(73.6%) 거주자, 미혼자(72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'모금 및 구호단체' 는 대구/경북(60.3%) 및 광주/전라(69.7%)거주자, 읍/면지역(61.7%), 기혼자(51.1%), 가구소득이 100~199만원(61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- ▷ '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, 노숙인 등' 은 서울(32.8%) 및 인천/경기(40.5%) 거주자, 대도시(30.7%),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(30.2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2-2. 2005년 기부처 인지 경로

문) 그 '시설/기관/단체/개인' 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? 다음 중 해당하는 번호를 각각 하나씩만 말씀해주시시오.

● 기부한 곳을 알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서 '신문,TV,라디오,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'가 38.5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'시설/기관/단체에 의한 직접홍보 및 요청을 통해서' (22.9%), '길에서 만남(지하철/길)' (10.1%) 등의 순으로 나타남(response base; n=1,303).

- 언론매체는 2003년(48.3%) 조사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음.
- 시설/기관/단체에 의한 홍보 및 요청은 지난 2003년(11.8%) 조사보다 11.1%포인트 증가하였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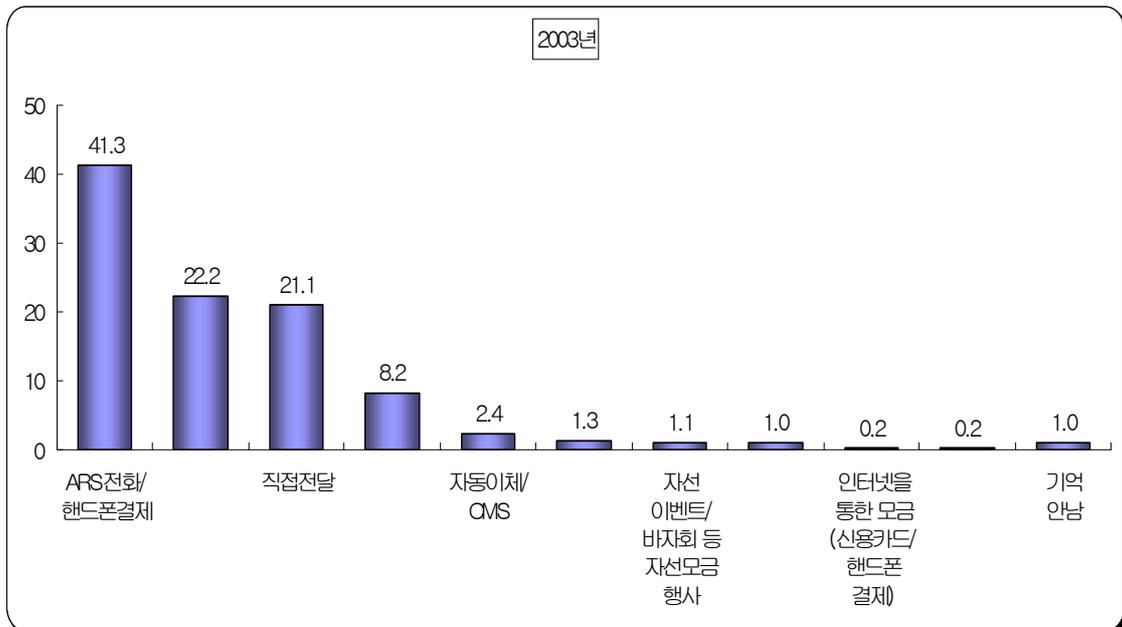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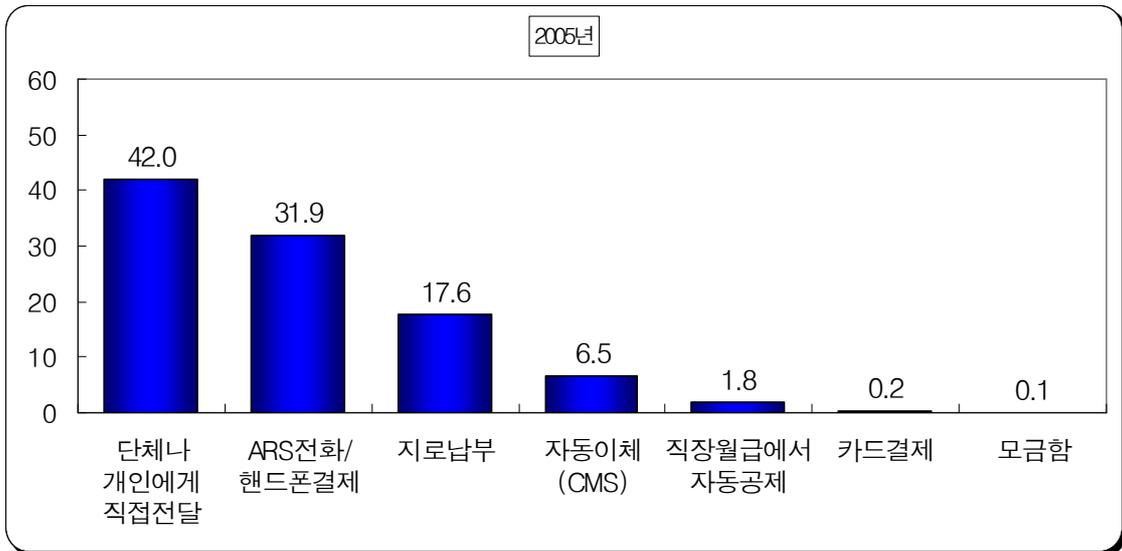


2-3. 2005년 기부 방법

문) 그 '시설/기관/단체/개인' 에게 어떤 방법으로 '기부' 를 하셨습니까?

● 기부 방법에서는 '단체나 개인에게 직접 전달' 이 42.0%로 가장 높았으며, ARS전화/핸드폰결제 '는 31.9%', 지로납부 '가 17.6%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(response base; n=1,303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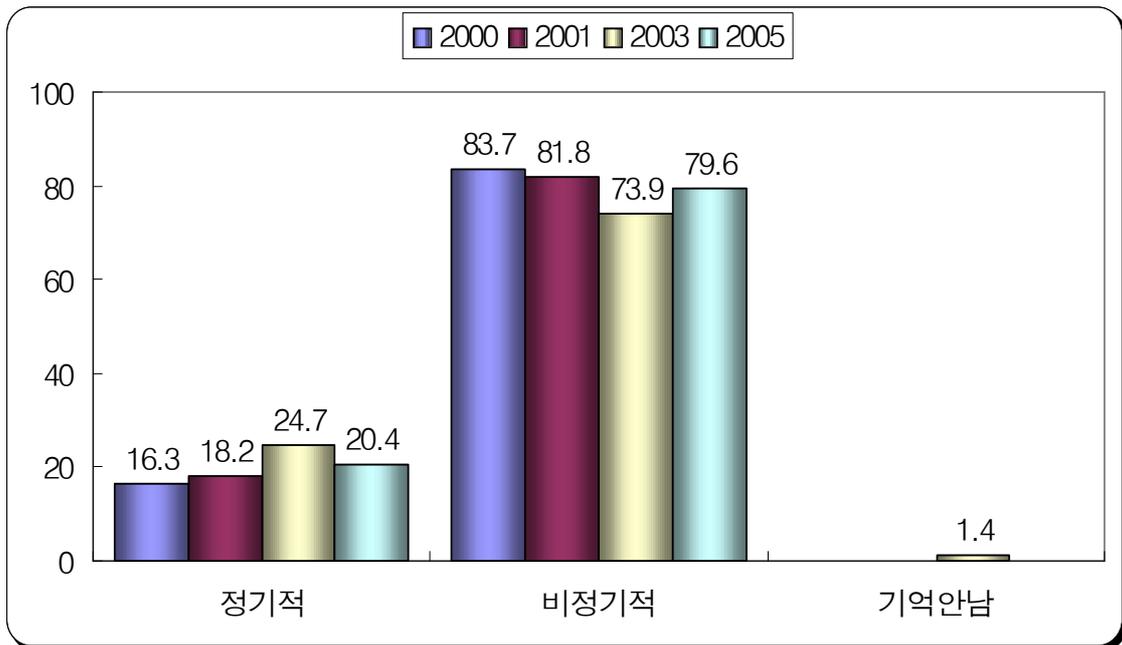
- 직접전달은 2003년(21.1%) 조사에서는 그 빈도가 낮았지만, 2005년도에는 42.0%로 2배정도 증가 하였음.



2-4. 2005년 기부 정기성 여부

문) 그 시설/기관/단체/개인에 대한 '기부' 는 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? 아니면 비정기적으로 하신 것입니까?

- 기부의 정기성 여부에서는 '정기적' 기부가 20.4%로 나타남(response base; n=1,303).
 - 2001년 18.2%, 2003년 24.7로 증가하였으나, 2005년에는 정기적인 기부참여는 줄어들었으며, 비정기적 기부는 2003년에 비해, 5.7%포인트 증가하였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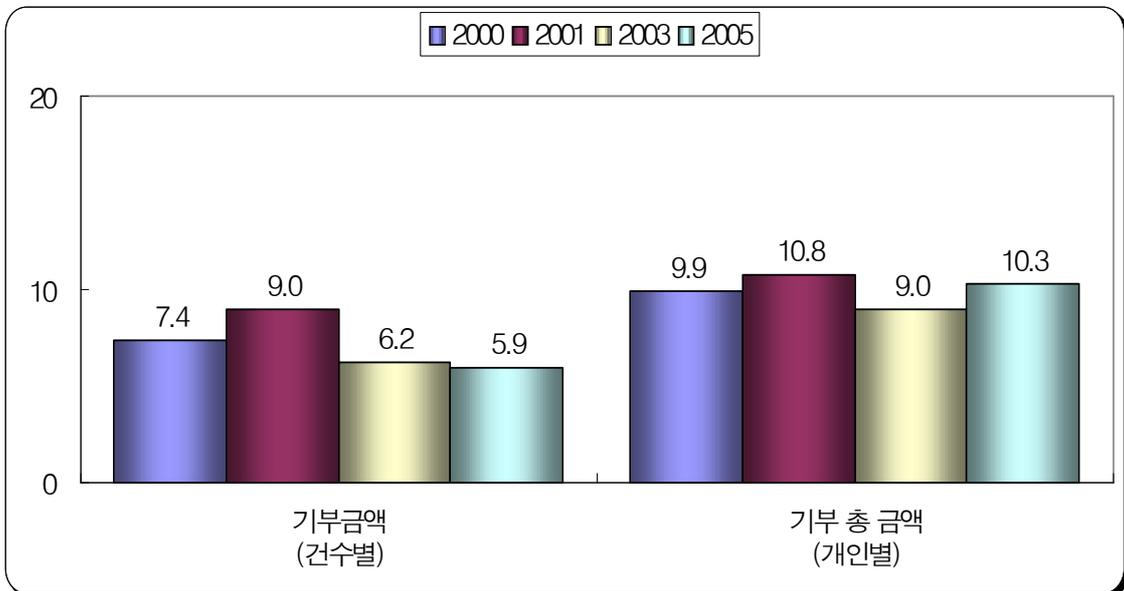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'정기적' 이라는 응답은 40대(24.4%), 중졸이하(28.7%), 농/임/어업 종사자(60.0%), 대구/경북(36.8%), 읍/면 거주자(32.3%), 기혼자(22.7%), 가구소득 100~199만원(28.5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'비정기적' 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20대(86.5%), 학생(96.5%), 서울(84.0%) 및 인천/경기(84.6%) 거주자, 대도시(83.1%), 결혼상태 미혼(88.2%)임.

2-5. 2005년 기부 금액

문) 작년 한 해 동안(2005년 1월~12월) 그 시설/기관/단체/개인에게 ‘기부’ 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? 현금(돈)과 현물(물품)을 나누어 응답해주시고, 현물(물품)은 현금 가치로 환산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2005년 기부 경험자에 한정하여 기부 금액을 살펴보면, ‘건수별 기부 금액’의 평균은 “58,490원”으로 조사됐고, ‘개인별 기부 금액’의 평균은 “102,550원”으로 조사됨.
 - 종교적 기부를 제외한 ‘국민 1인당 평균 기부 금액’은 “70,305원”으로, 2003년 조사의 57,859원보다 21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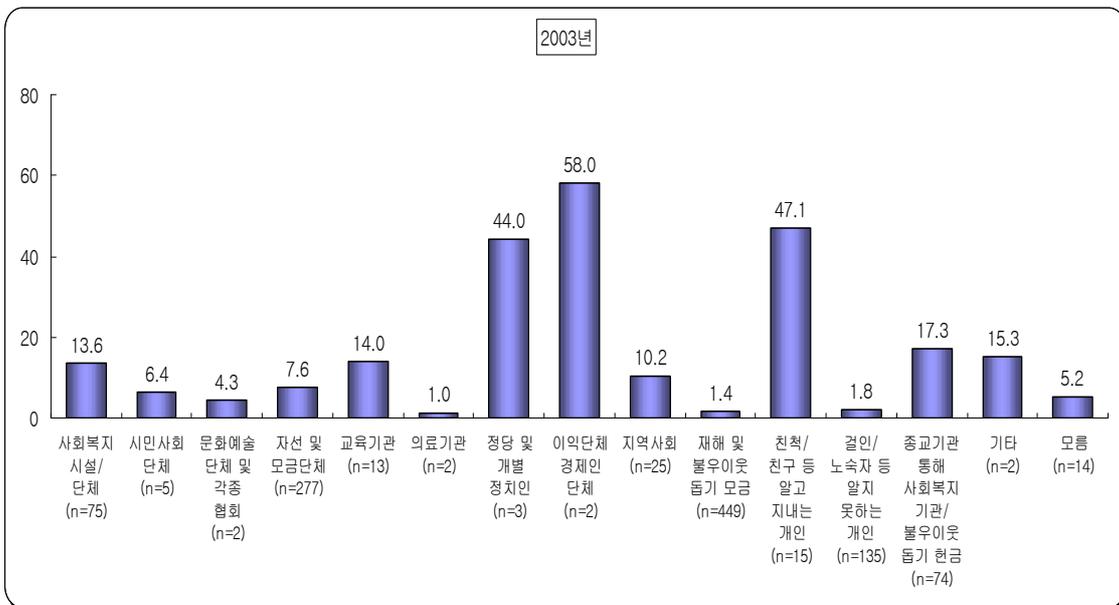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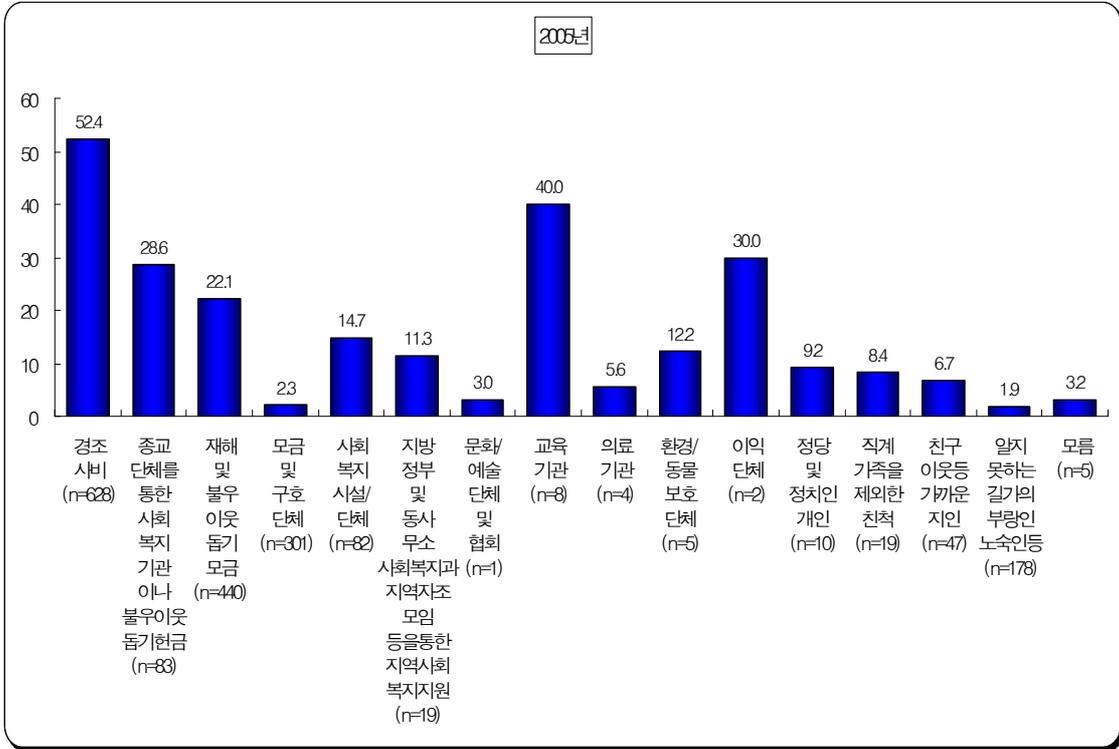
<그림> 기부 금액
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건수별 기부금액은 여성(6만4천원), 30대(6만8천원), 50대이상(6만4천원), 대재이상(7만원), 자영업(7만8천원), 인천/경기(6만6천원), 강원(10만2천원), 대도시 거주자(7만원), 기혼자(6만4천원), 기독교(8만4천원) 및 천주교(8만5천원)신자, 개인소득 100~199만원(6만7천원) 및 200만원 이상(6만5천원),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(7만1천원), 거주형태 자가(6만3천원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GIVING KOREA 2006

- 기부처별로 살펴보면, ‘경조사비’ (n=628) 52만 4천원, ‘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 현금’ (n=83) 28만6천원, ‘재해 및 불우이웃 돕기 모금’ (n=440) 22만1천원, ‘사회복지시설/단체’ (n=82) 14만7천원, ‘친구, 이웃 등 가까운 지인’ (n=47) 6만7천원, ‘모금 및 구호단체’ (n=301) 2만3천원, ‘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, 노숙인 등’ (n=178) 1만9천원 등으로 나타남.
 - 여타 기부처는 표본수가 10 내외로 적어,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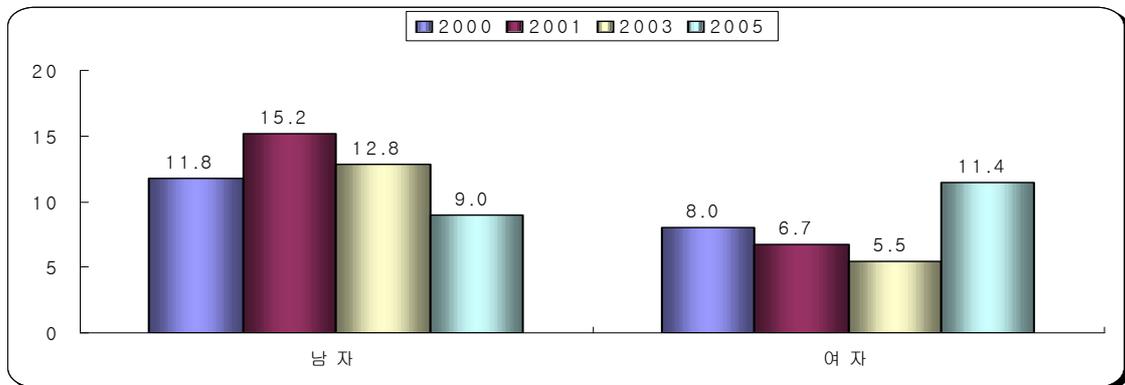


<그림> 기부처별 기부 금액

GIVING KOREA 200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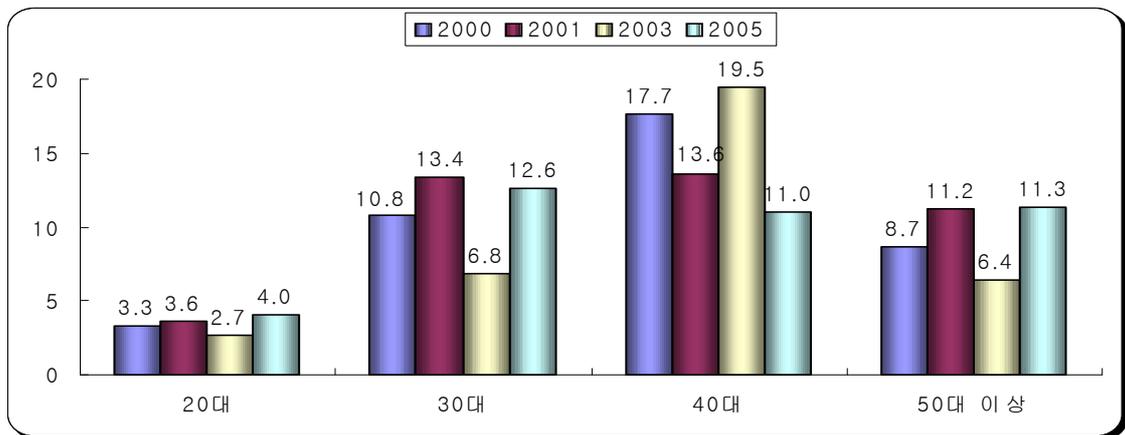
■ 인구사회적 특성별 기부 금액 세부 비교

- 기부 금액을 성별로 비교하면, 지난 조사와 달리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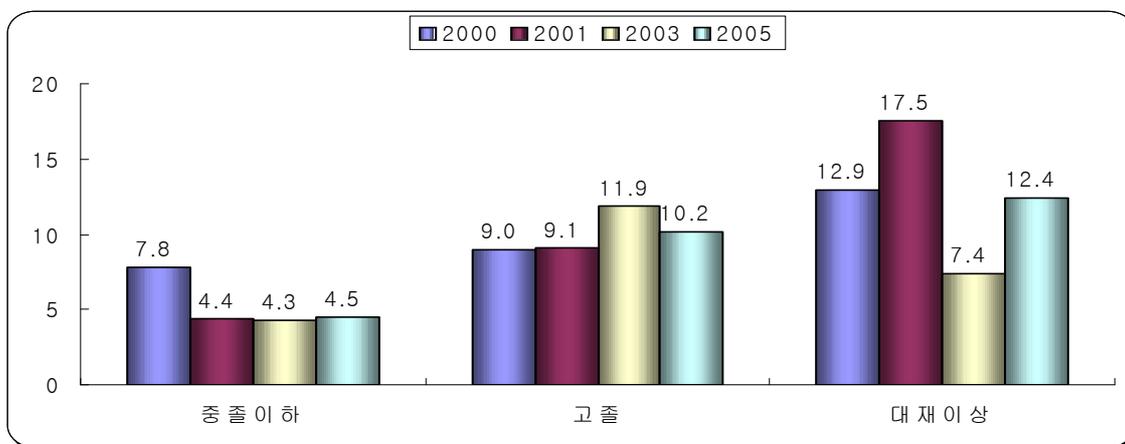
<그림> 성별 기부 금액

- 연령대별로 20대가 금액이 낮았으며, 그 이상의 연령대는 큰 차이가 없음.



<그림> 연령대별 기부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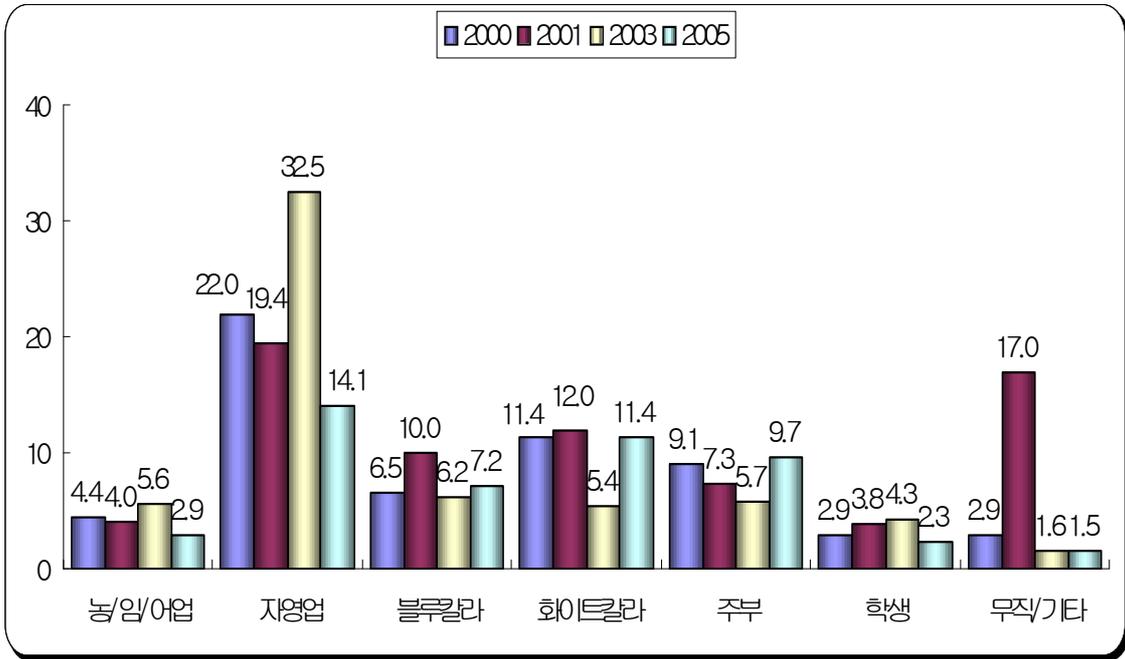
- 학력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기부금액이 높게 나타남.



<그림> 학력별 기부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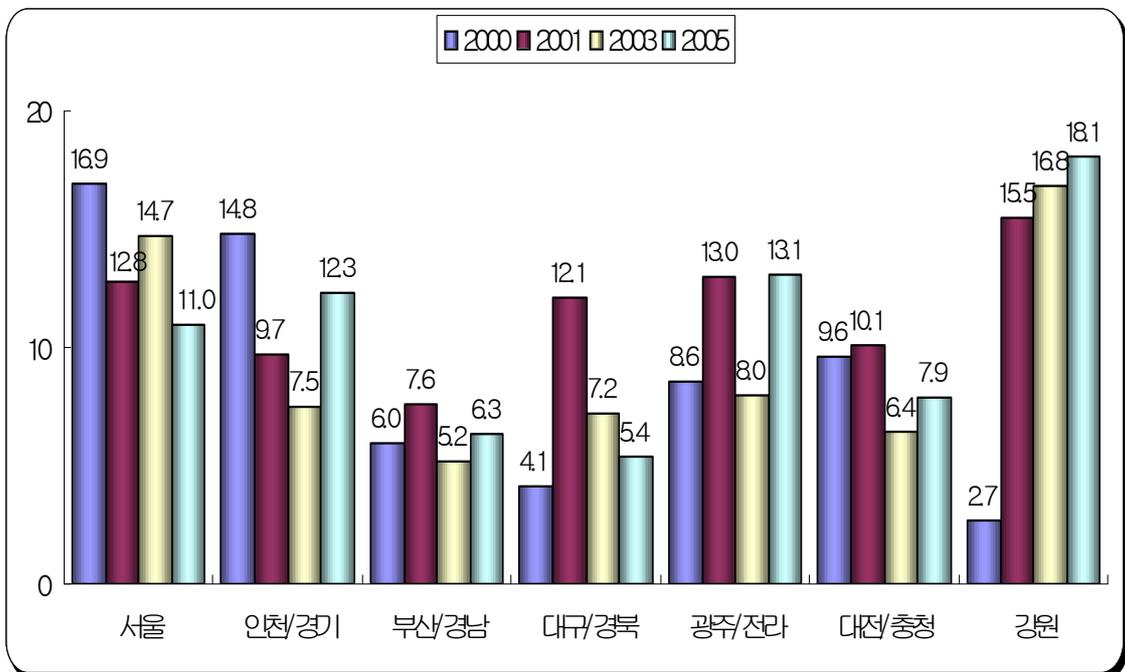
GIVING KOREA 2006

●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기부 금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며, 화이트칼라에서는 2배가량 증가하였음.



<그림> 직업별 기부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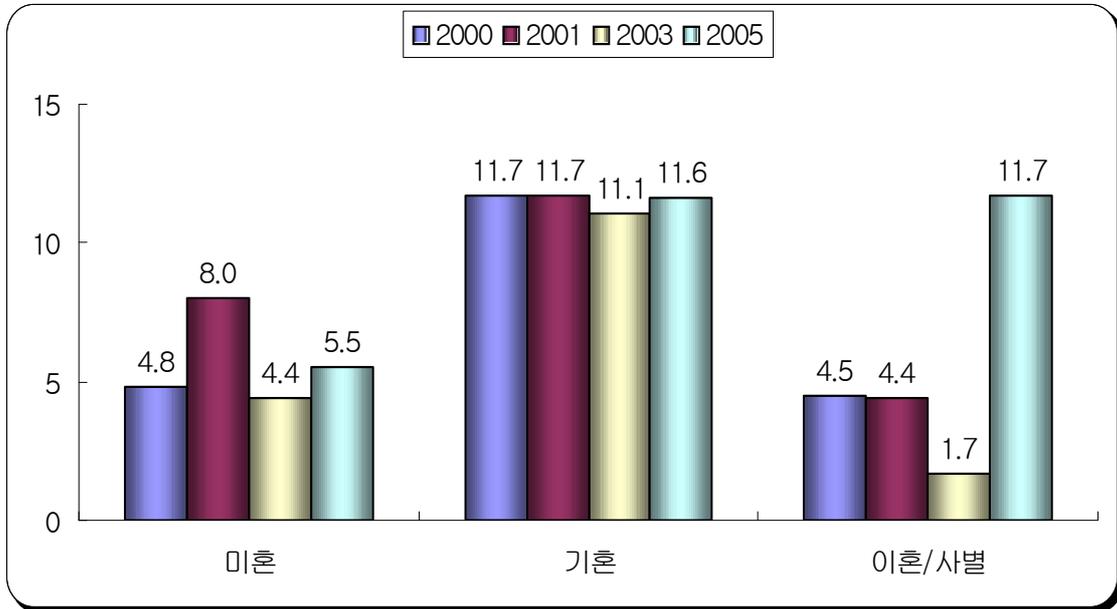
● 인천/경기, 광주/전라지역이 2003년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으며, 강원도의 경우 사례수가 22로 작아 의미를 부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음.



<그림> 지역별 기부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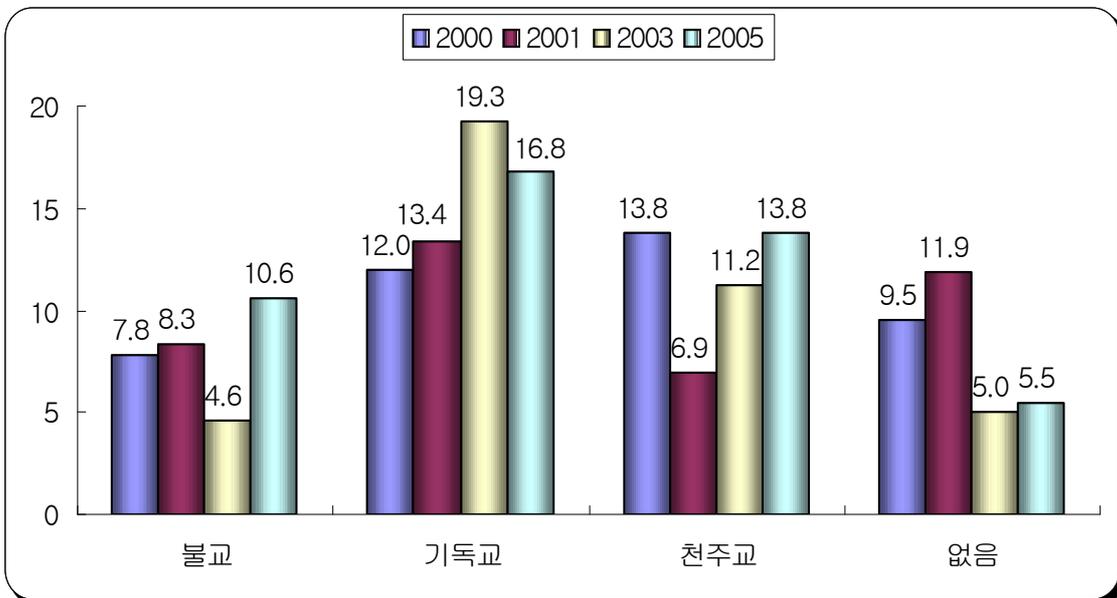
GIVING KOREA 2006

- 결혼 상태별로는 미혼자의 기부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, 2003년에 비해 이혼/사별에서 기부 금액이 크게 상승하였음.



<그림> 결혼상태별 기부 금액 이혼사별은39

- 종교별로는 기독교 > 천주교 > 불교 > 무교의 순서였음.
2003년에 비해 종교별 기부금액이 불교는 크게 상승하였으며, 기독교는 조금 줄어들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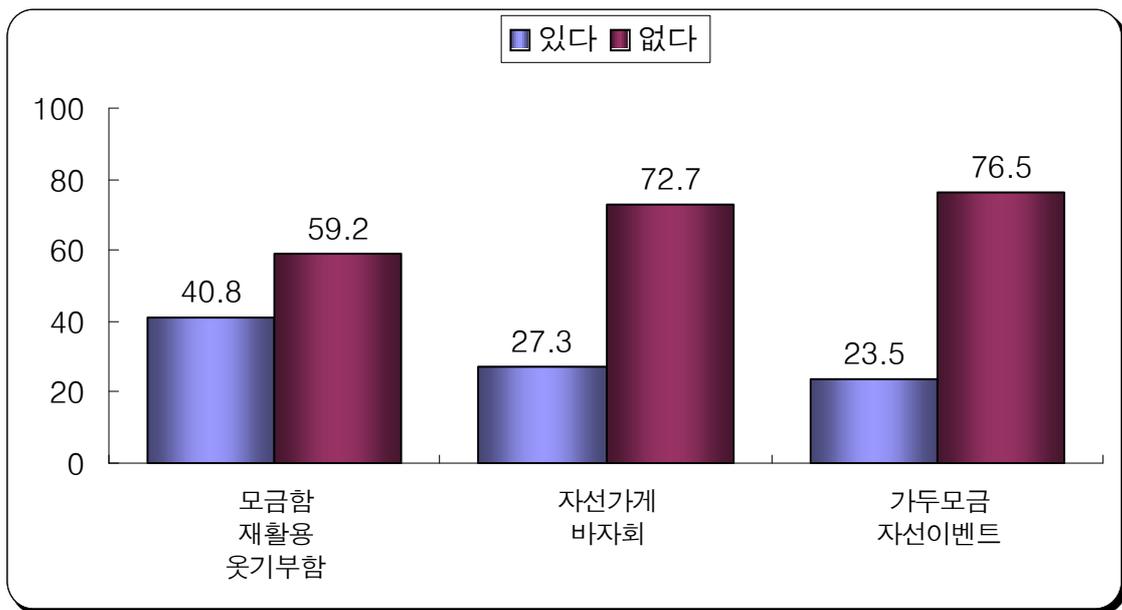


<그림> 종교별 기부 금액

2-6. 2005년 자선 및 기부 행사 참여 경험 유무

문)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행사 및 기부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?

- | |
|--|
| ① 지하철, 마트계산대 등에 비치된 모금함, 재활용 옷 기부함 등에 기부 |
| ② 자선가게, 바자회 등에서 물건 구입을 통해 기부 |
| ③ 가두모금 캠페인, 자선이벤트 등 자선모금 행사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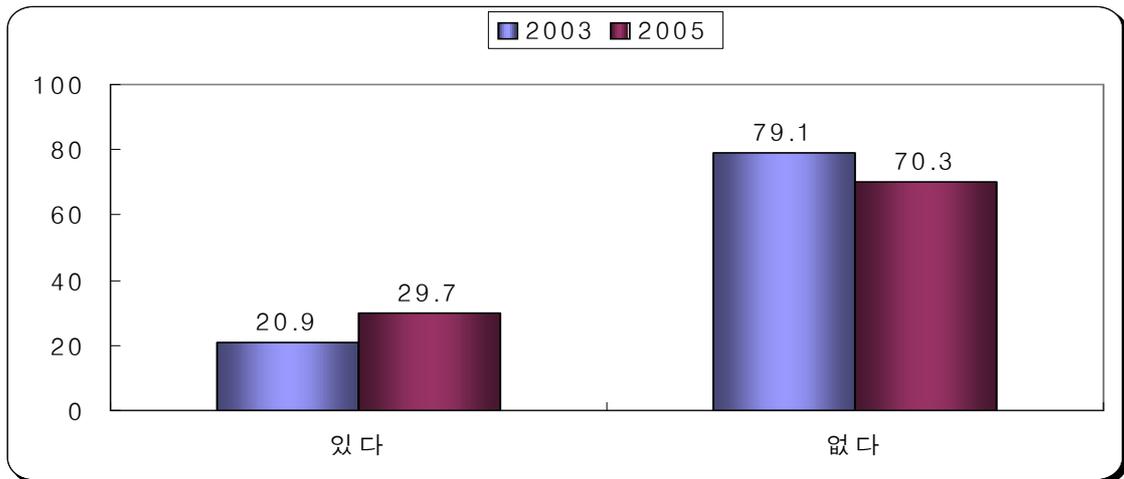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'모금함, 재활용 옷 기부함' 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(46.8%), 30대(47.5%), 서울(49.8%), 인천/경기(49.0%), 대구/경북(51.3%), 광주/전라(52.4%) 거주자, 대도시(46.4%), 기독교 신자(48.7%)에서 높게 나타났음.
- ▷ '자선가게 바자회' 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(36.5%), 40대 이상(34.4%), 고졸(31.8%), 주부(46.0%), 인천/경기(37.6%), 대도시 거주자(31.3%), 기혼자(31.3%), 천주교(35.8%) 신자,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(31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'가두모금 캠페인, 자선이벤트'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대재이상(30.3%), 서울(31.3%), 대도시 거주자(27.5%),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(29.0%)에서 높게 나타남.

2-7. 2005년 종교기관 기부 참여율 및 기부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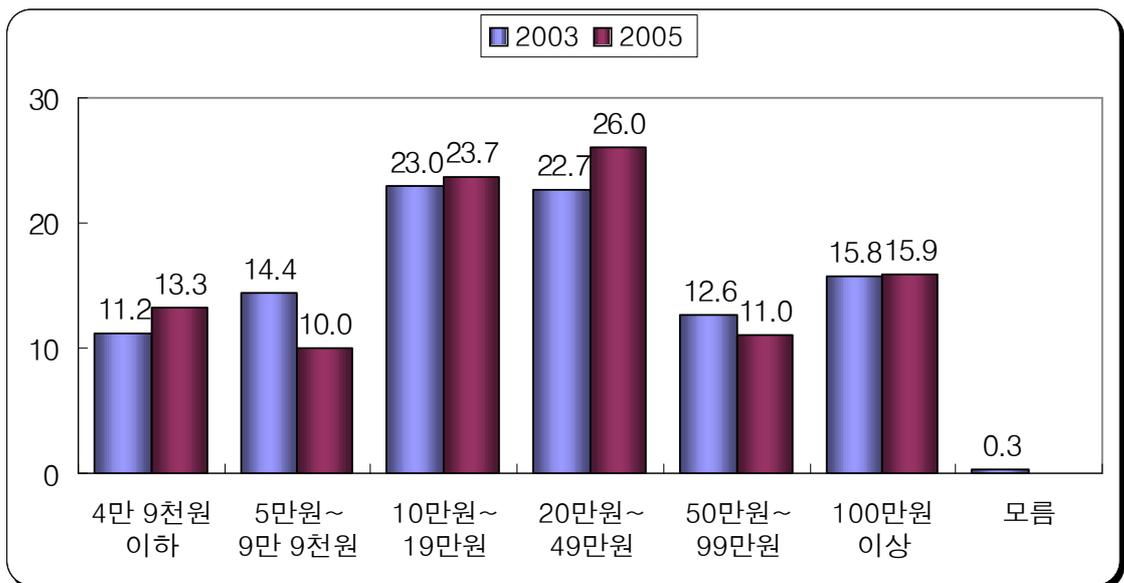
문) 작년 한 해 동안(2005년 1월~12월) 그 시설/기관/단체/개인에게 '기부' 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? 현금(돈)과 현물(물품)을 나누어 응답해주시고, 현물(물품)은 현금 가치로 환산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2005년 교회, 성당, 절 등의 종교기관에 순수현금을 한 적이 있는지 묻은 결과, 응답자 1,005명 중 '있다'는 응답이 29.7%로 나타남.



<그림> 종교기관 순수현금 참여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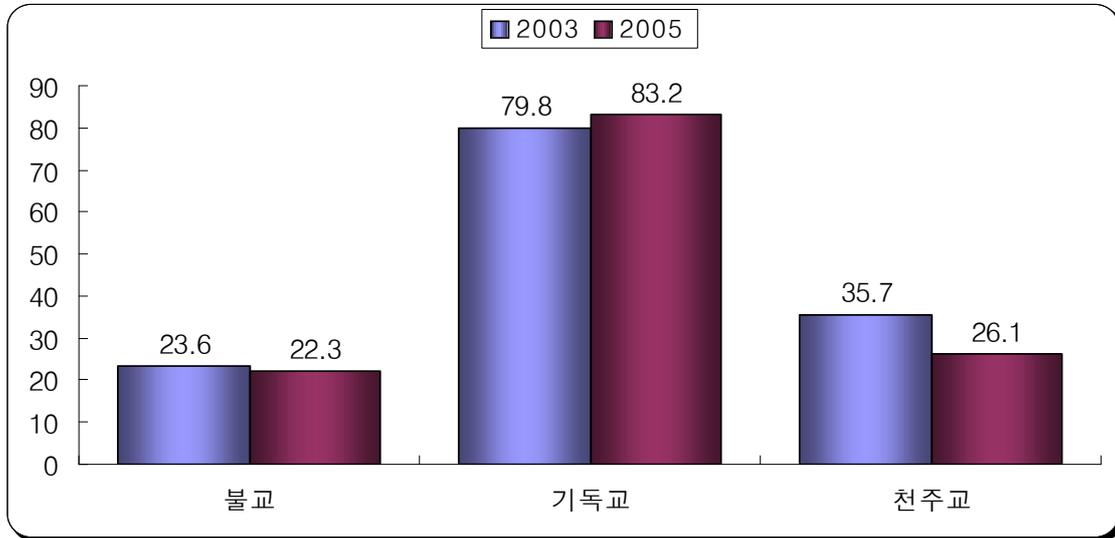
- 종교기관에 순수현금을 한 적이 있다는 260명의 현금액 비율은 '20~49만원' (26.0%), '10~19만원' (23.7%)에서 높게 나타남(n=260).
 - 한편, 순수현금의 평균 금액은 "50만7천원"이었음.



<그림> 종교기관 순수현금액

GIVING KOREA 2006

- 종교별 순수헌금을 살펴보면 기독교 신자가 83만2천원으로 2003년 조사(79만8천원)보다 증가하였으며,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다소 감소하였음.
 - 기타(n=2), 없다(n=1)은 그림에 포함시키지 않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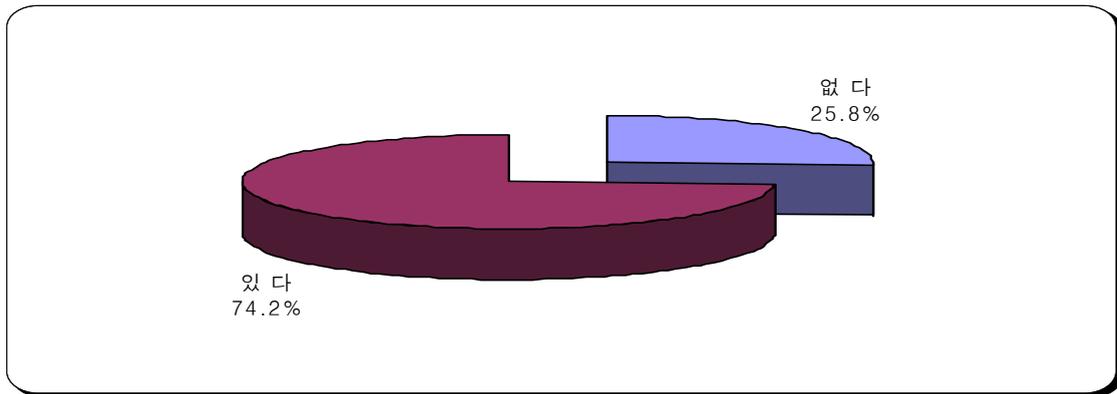


〈그림〉 종교별 기부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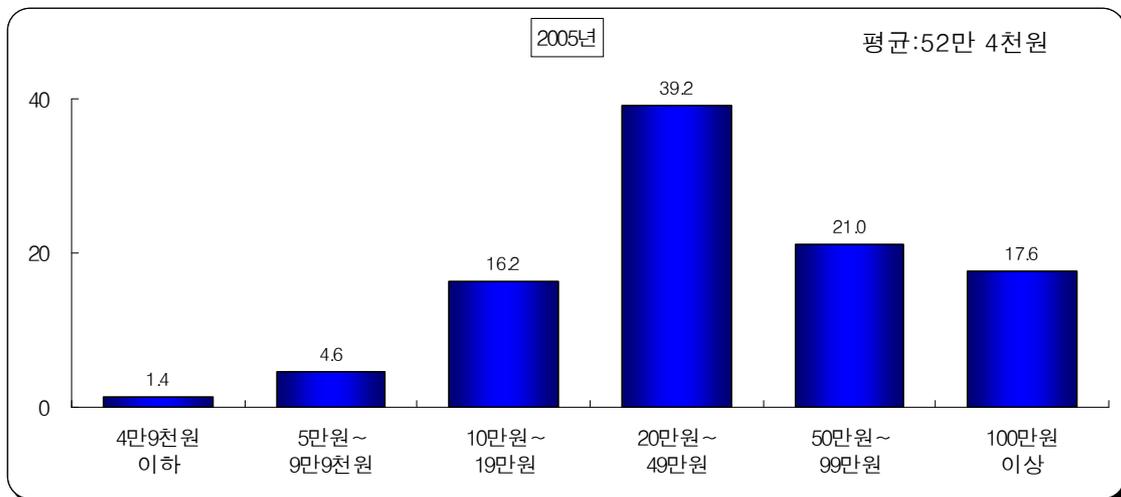
2-8. 2005년 경조사비 지출을 및 지출 금액

문) 작년 한 해 동안(2005년 1월~12월) 경조사비 지출을 하신적이 있으십니까? 그 시설/기관/단체/개인에게 '지출' 한 금액은 얼마나 되십니까? 현금(돈)과 현물(물품)을 나누어 응답해주시고, 현물(물품)은 현금 가치로 환산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◎ 2005년 경조사비 지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4.2% 였으며, 경조사비 비용은 20~49만원(39.2%)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.



<그림> 경조사비 지출 여부



<그림> 경조사비 지출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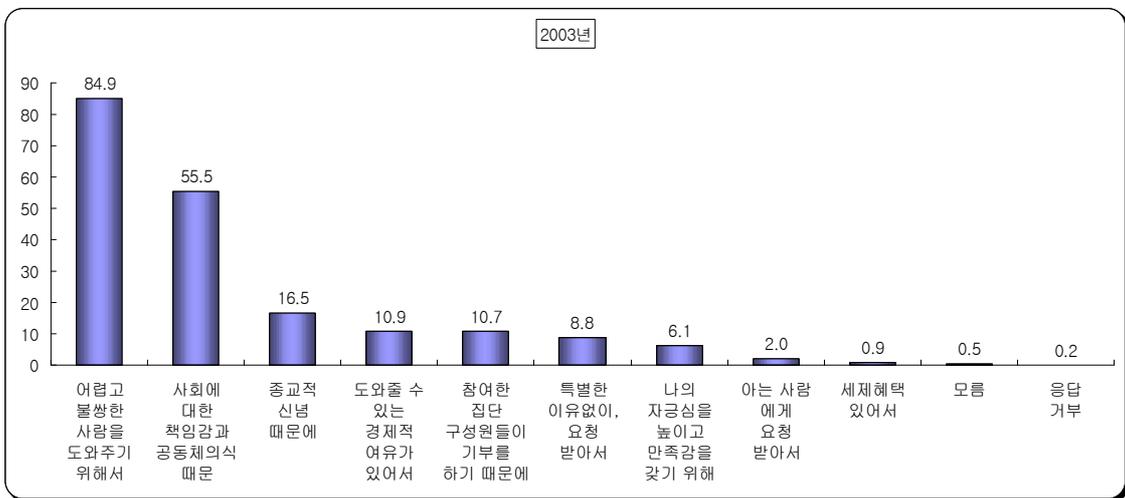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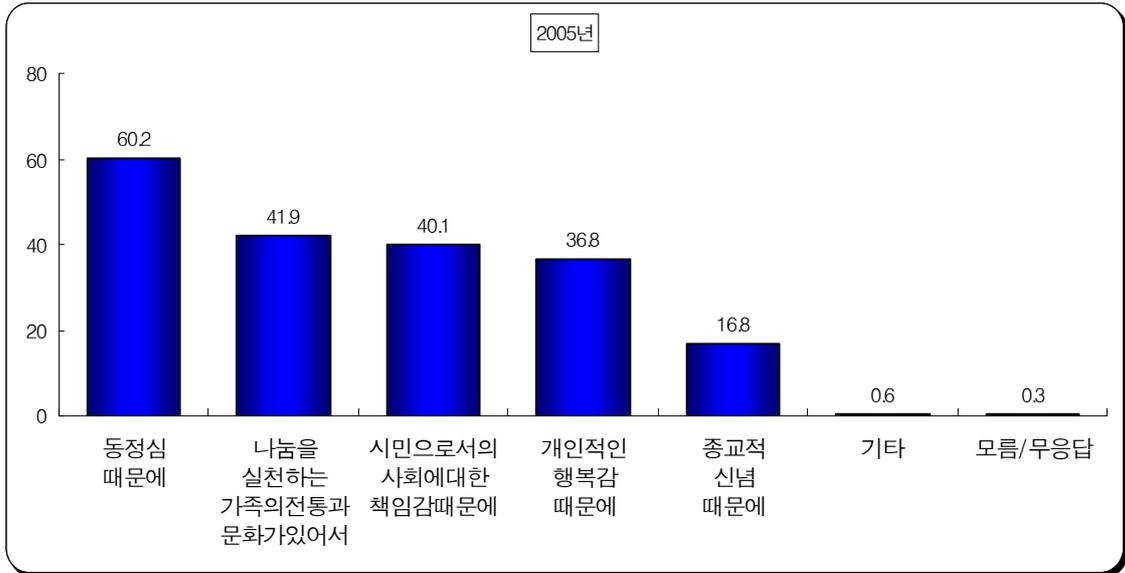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'경조사비 지출경험이 있다' 는 응답은 30대(79.7%), 40대(83.6%), 50대이상(84.8%), 중졸이하(81.8%), 고졸(81.7%), 농/임/어업(95.2%), 자영업(86.0%), 화이트칼라(78.9%), 대구/경북(86.2%), 읍/면 거주자(88.2%), 기혼자(86.0%), 개인소득 200만원 이상(85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- ▷ 경조사비 지출이 '20~49만원' 이라는 응답은 30대 이상(47.3%), 블루칼라(47.0%)에서 상대적 높게 나타났음.

3. 기부의 이유

문) 귀하께서 '기부를 하시는 이유' 는 무엇입니까? 가장 큰 이유와 두 번째로 큰 이유를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.

◎ 2005년 기부 참여자 689명의 기부 이유로는 '동정심 때문에' 가 60.29%로 가장 높았고, '나눔을 실천하는 가족의 전통과 문화가 있어서' 가 41.9%로 두 번째로 높았음(중복응답; n=689).



<그림> 기부 동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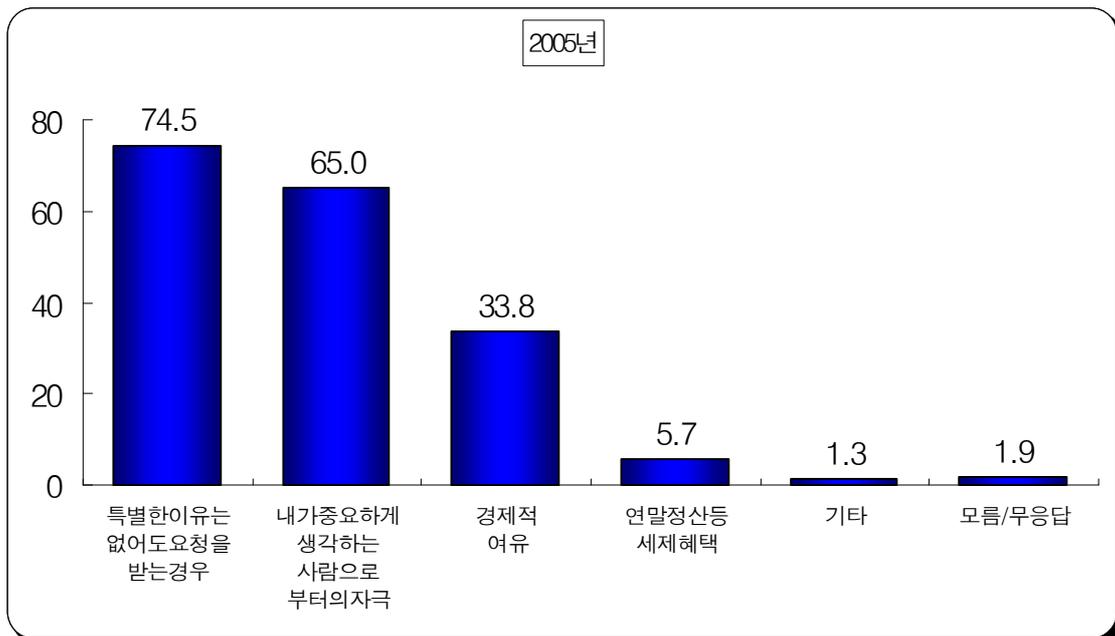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▷ '동정심 때문에' 라는 응답은 인천/경기 거주자(67.2%), 미혼자(67.4%), 무신론자(64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.

4. 기부동기 외에 기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

문) '기부하는 이유(기부동기)' 외에 다음 중 귀하의 기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입니까? 가장 큰 요인과 두 번째로 큰 요인을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주십시오.

- 기부동기 외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'특별한 이유는 없어도, 요청을 받는 경우'가 74.5%로 가장 높았으며, '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자극'이 65.0%로 두 번째로 높았음.(중복응답; n=689).



〈그림〉 기부동기외 영향을 주는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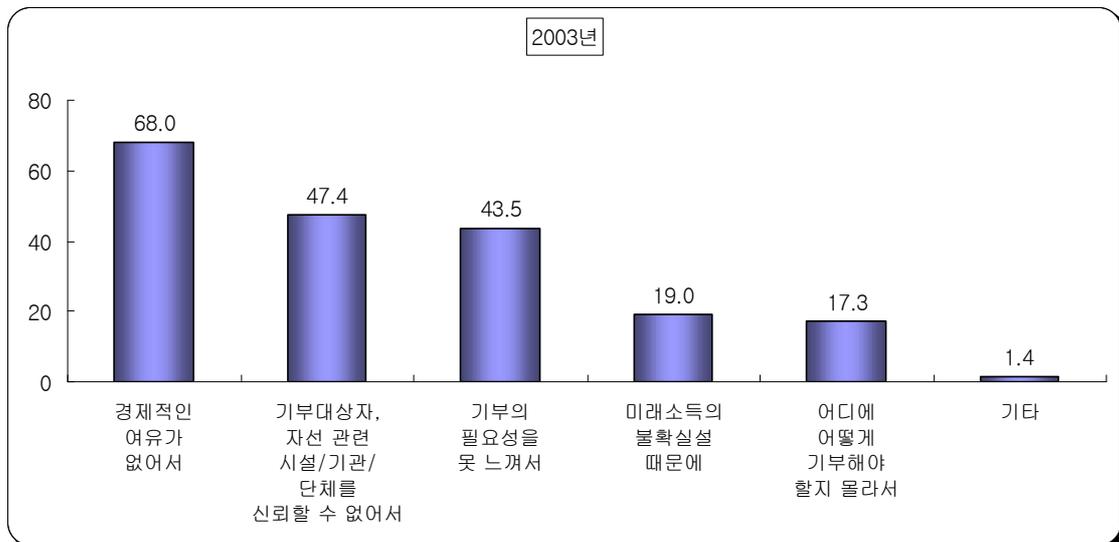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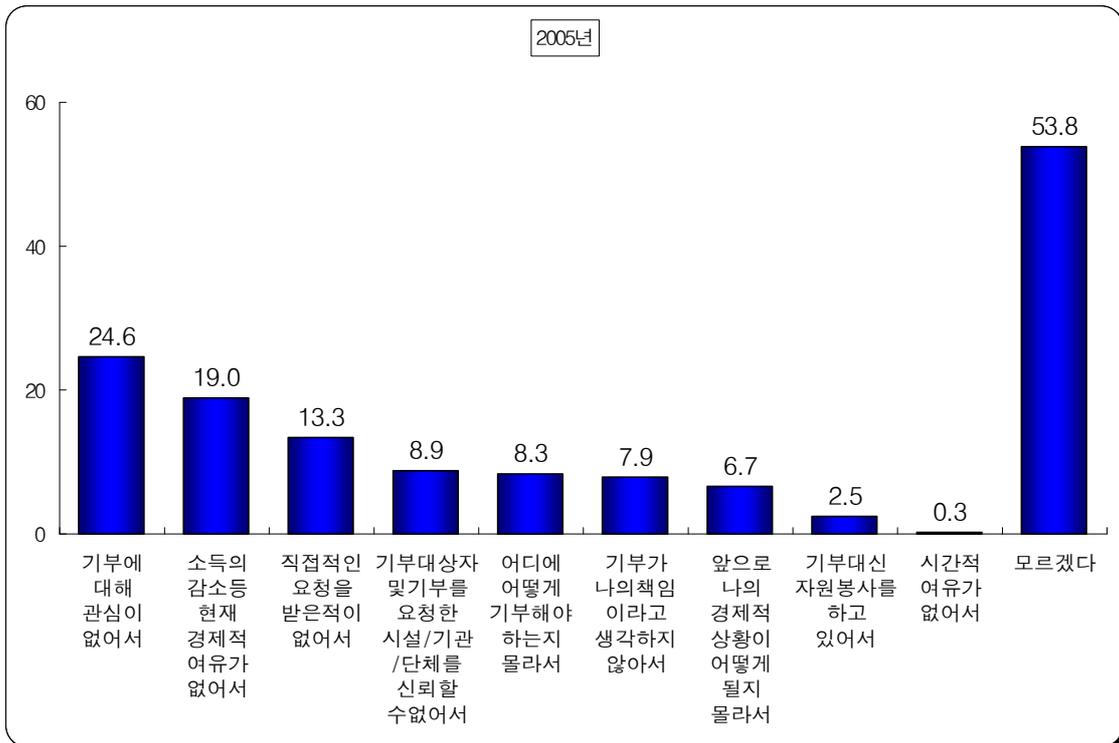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'특별한 이유는 없어도 요청을 받는 경우' 는 대구/경북(89.7%), 읍/면(82.5%)지역 거주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- ▷ '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의 자극' 은 대전/충청(81.2%), 천주교 신자(77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.

5. 기부하지 않은 이유(비기부자 한정)

문) 귀하께서 '기부를 하지 않으신 이유' 는 무엇입니까? 가장 큰 이유와 두 번째로 큰 이유를 아래에서 골라 주십시오.

- 2005년에 기부한 적이 없다는 316명에 한정하여 기부하지 않은 이유를 묻은 결과, 이유를 밝히지 않은 '모르겠다' 는 응답자가 53.8%였으며, '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' 가 24.6%, '소득의 감소 등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' 가 19.0%로 나타남(중복응답; n=361).


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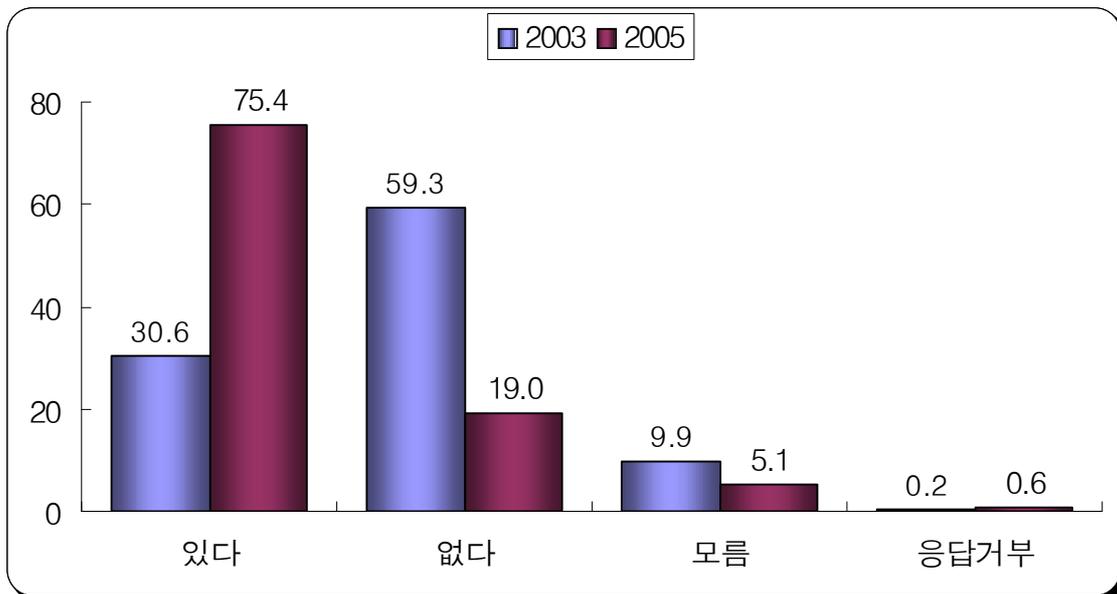
- ▷ ‘기부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’ 라는 응답은 20대(41.6%), 대재이상(35.0%), 학생(46.6%), 미혼(38.7%), 개인소득 49만원 이하(35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‘소득의 감소 등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’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20대(29.2%), 대재이상(27.6%), 학생(40.0%), 미혼(28.9%), 무신론자(24.1%)임.
- ▷ ‘직접적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어서’ 라는 응답은 20대(25.0%), 대재이상(20.9%), 학생(33.3%), 인천/경기 거주자(24.7%), 미혼(26.1%),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(18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6. 향후 1년 내 기부 의향

문) 귀하는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?

- 2005년 기부 비참여자 중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이 ‘있다’ 는 응답은 75.4%로 지난 2003년 조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음(단, 지난 조사는 기부참여를 하지 않은 비기부자 대상임).

☞ 본 문항부터 전체 응답자 1,005명에 대한 질문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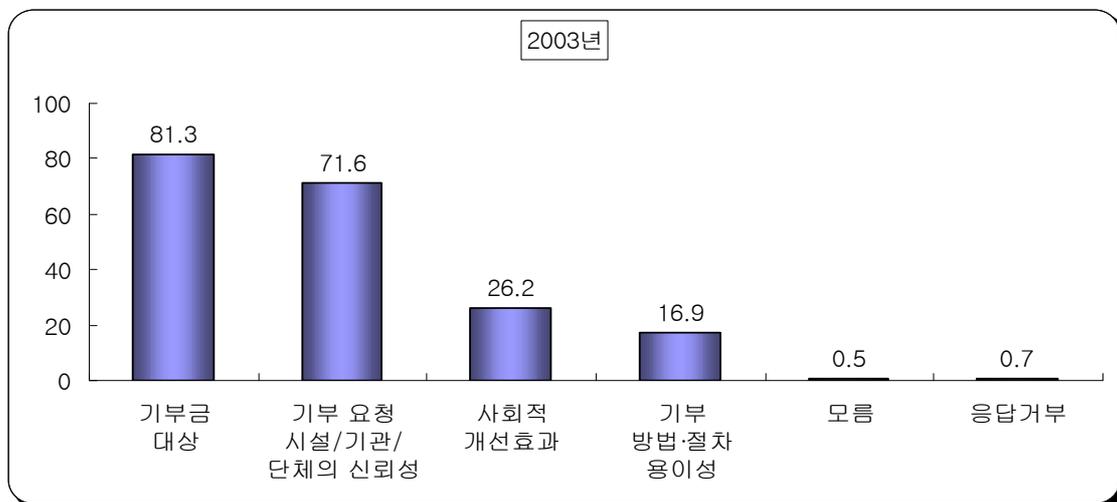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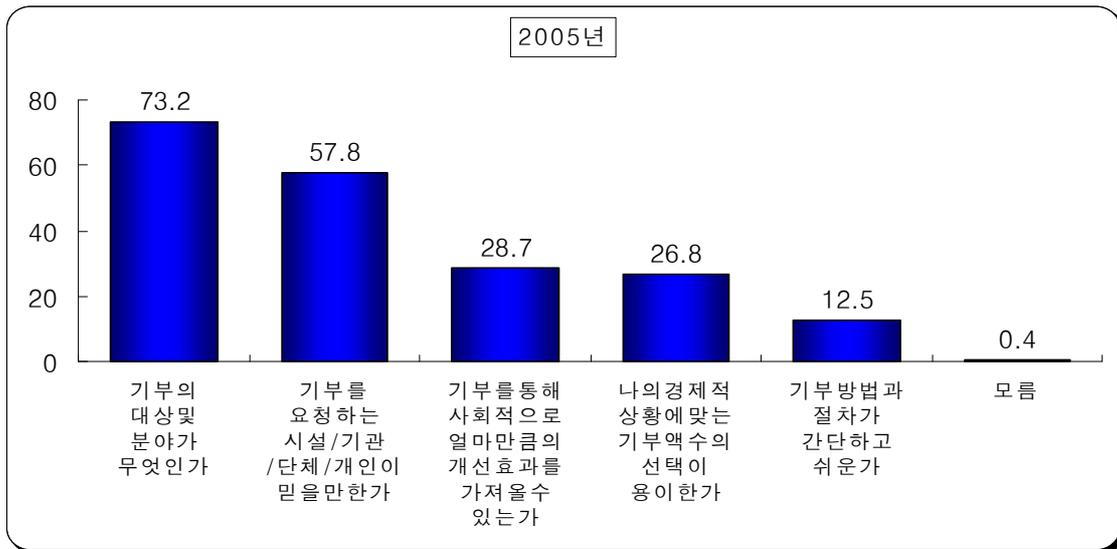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‘(의향이) 있다’ 는 응답은 여성(78.3%), 화이트칼라(79.8%), 인천/경기(79.9%) 및 대구/경북(84.4%) 거주자, 기독교 신자(82.3%), 개인소득 200만원 이상(79.7%),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(78.4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‘없다’ 는 응답은 중졸이하(26.8%), 블루칼라(26.0%), 부산/울산/경남(25.3%) 및 대전/충청(34.3%) 거주자, 무신론자(23.8%), 가구소득 100~199만원(25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7. 기부참여 결정 시 고려사항

문) 귀하께서 향후에 기부하기로 결정한다면, 다음 중 어떤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하시겠습니까? 두가지를 골라주십시오

- 기부참여 결정 시 고려할 점으로는 '기부금의 대상 및 분야가 무엇인가' (73.2%)가 가장 높았고, '기부를 요청하는 시설/기관/단체/개인이 믿을 만 한가' (57.8%)가 다음으로 높았음(중복응답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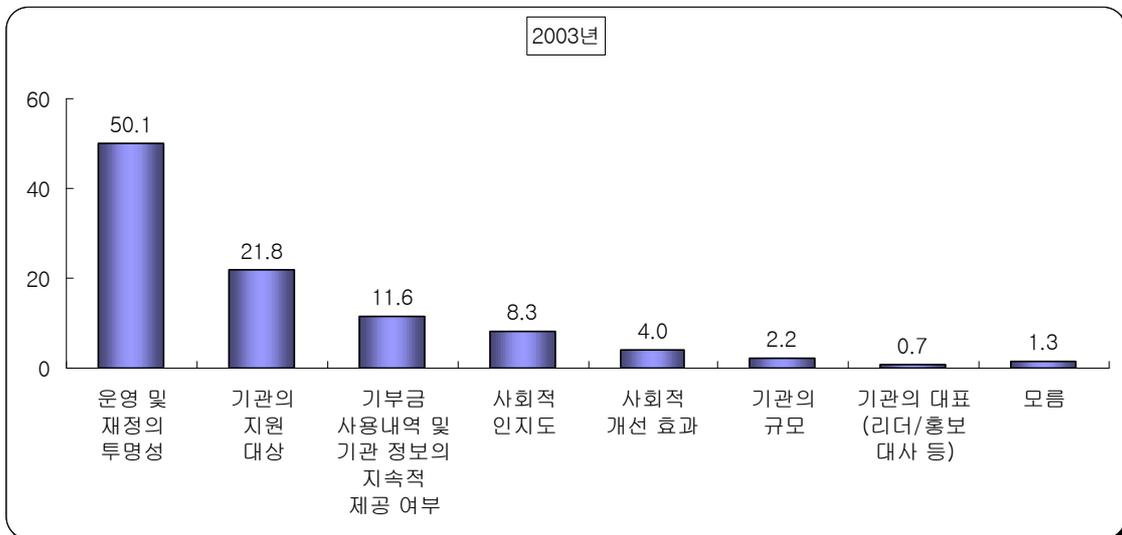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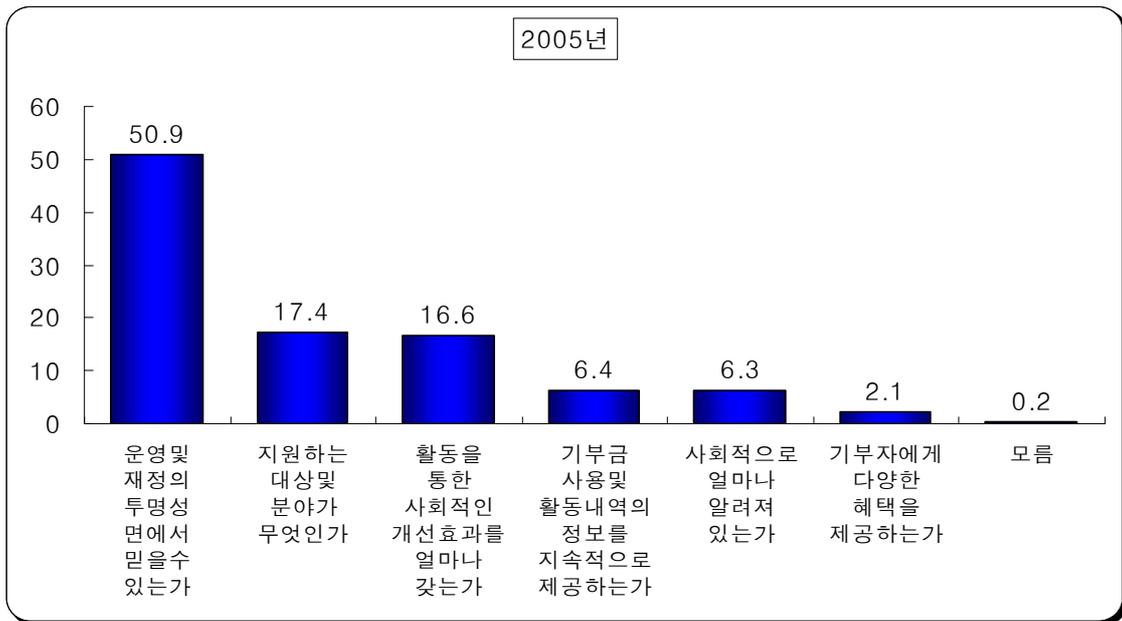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'기부금의 대상 및 분야가 무엇인가' 는 대구/경북(83.5%) 및 광주/전라 거주자(85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'기부를 요청하는 시설/기관/단체/개인이 믿을 만 한가' 는 서울(65.6%) 및 대구/경북 거주자(70.6%), 대도시 거주자(62.1%), 거주형태 전세(64.5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8. 단체/시설/기관 기부 시 고려사항

문) 귀하께서 개인에 대한 직접 기부가 아닌, 단체/시설/기관 등에 기부하신다면, 다음 중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하시겠습니까?

- 단체/시설/기관 등에 기부할 경우, 가장 많이 고려할 기관의 특성으로는 ‘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면에서 믿을 수 있는가’ 여부가 응답자의 절반 정도인 50.9%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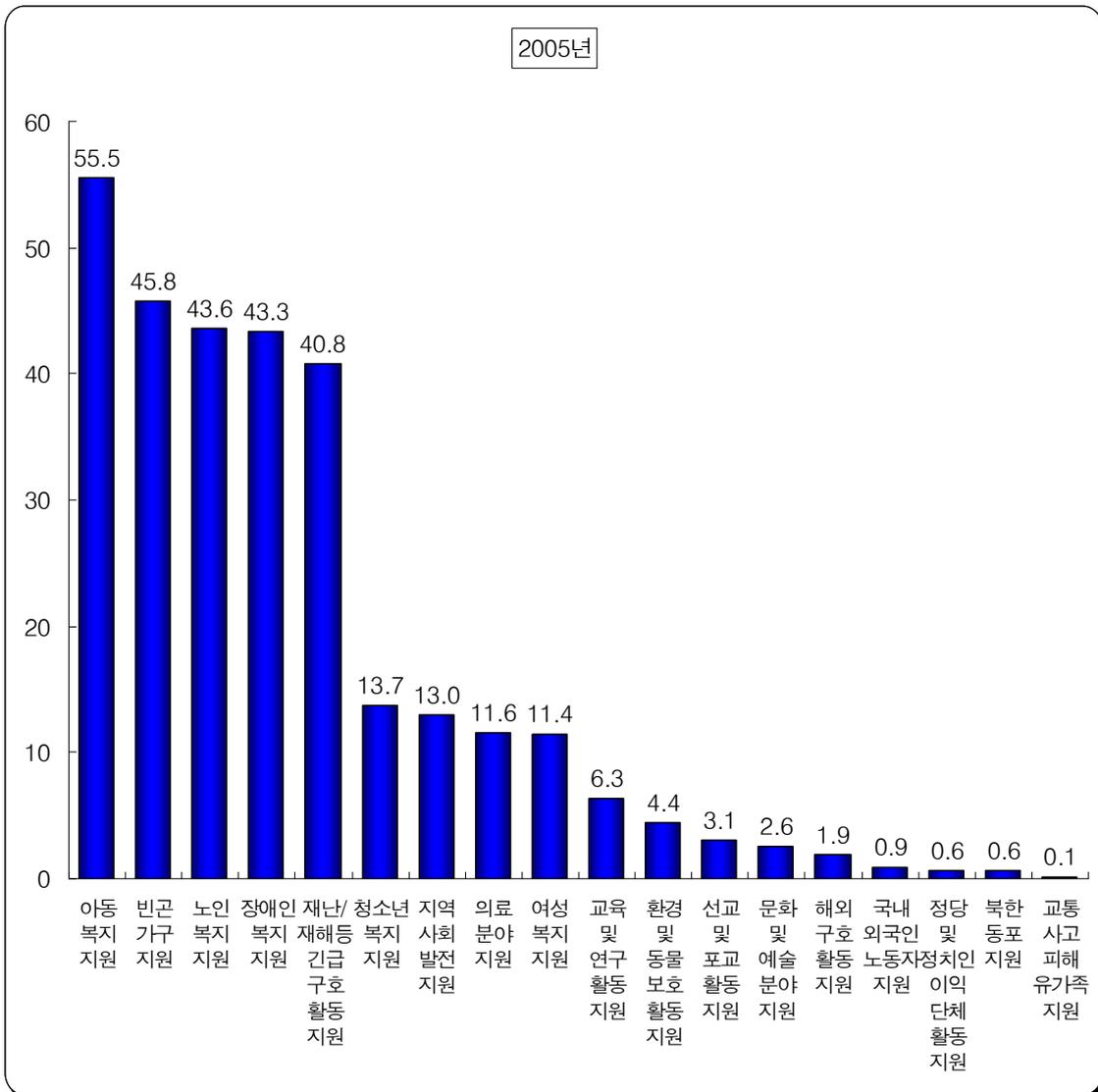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‘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면에서 믿을 수 있는가’ 라는 응답은 대구/경북 거주자(61.5%), 무신론자(54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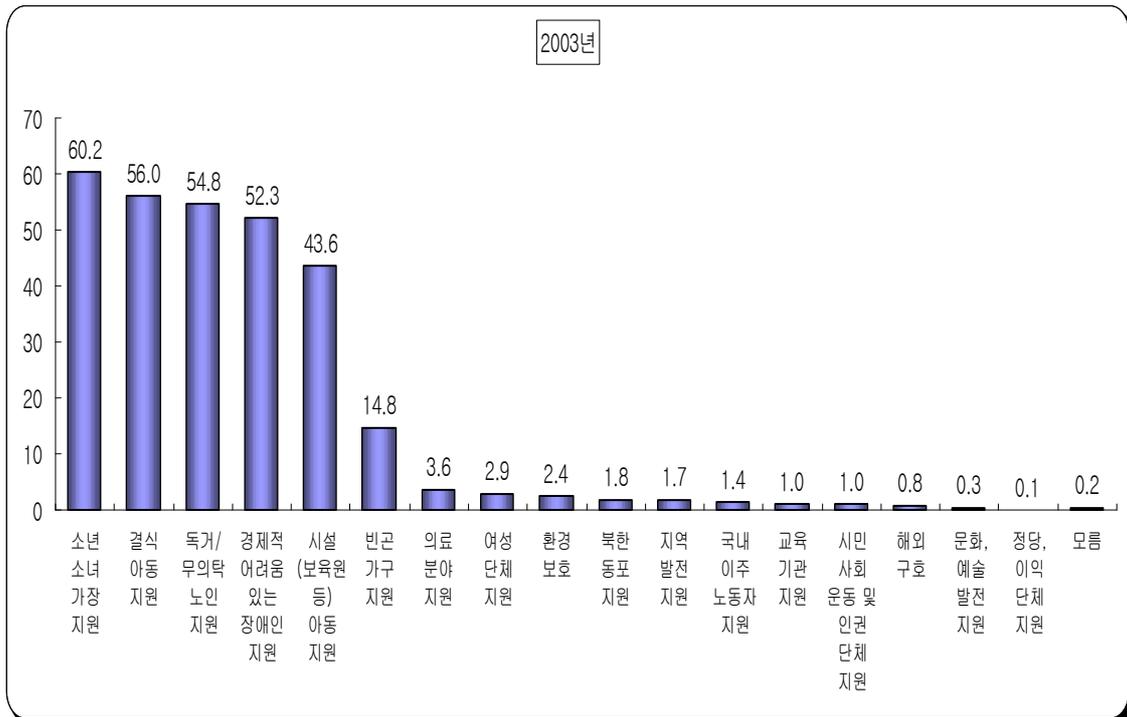
9. 기부금 사용 희망 분야

문)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, 그 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분야에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? 희망하시는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십시오.

- 기부금 사용 희망분야로는 '아동 복지 지원' 이 55.5%로 가장 높았고, '빈곤 가구 지원' (45.8%), '노인 복지 지원' (43.6%), '장애인 복지 지원' (43.3%), '재난/재해 등 긴급구호활동 지원' (40.8%) 등의 순으로 나타남(3가지 중복응답).



GIVING KOREA 2006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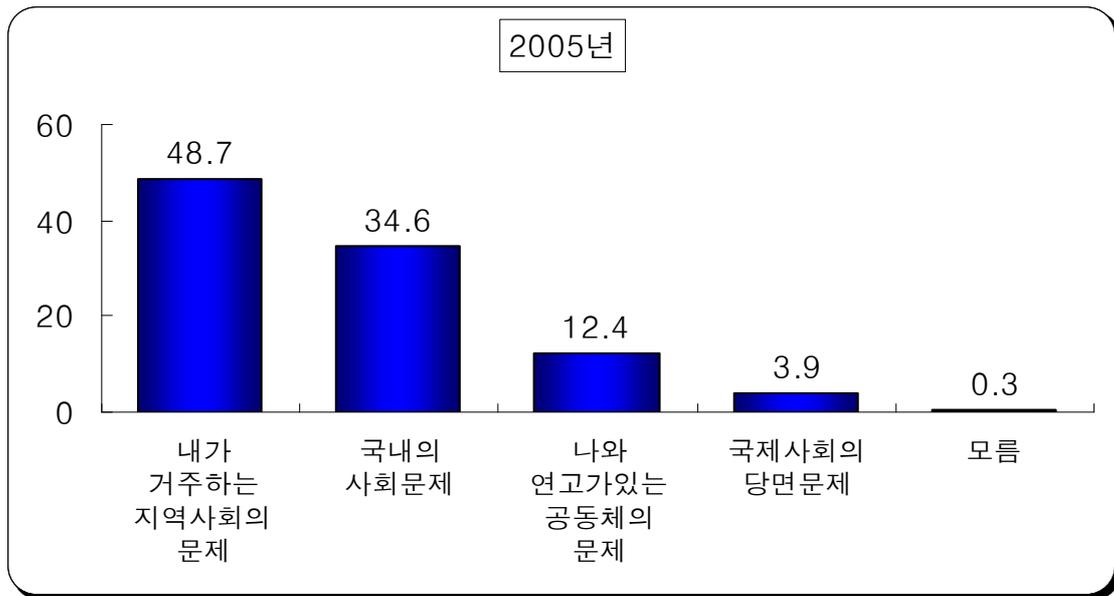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‘아동 복지 지원’ 은 여성(59.5%), 중졸이하(69.7%), 주부(68.8%), 대구/경북 거주자(69.7%), 개인소득 49만원 이하(61.1%), 가구소득 200~299만원 (60.6%), 거주형태가 전세(61.9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‘빈곤 가구 지원’ 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인천/경기(52.0%) 및 대전/충청(62.1%) 거주자, 읍/면 거주자(52.5%)임.
- ▷ ‘노인 복지 지원’ 은 50대 이상(50.1%), 자영업(50.4%), 인천/경기(50.6%) 및 대구/경북(53.2%) 거주자, 기혼자(46.8%), 거주형태가 자가(45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‘장애인 복지 지원’ 은 중졸이하(51.5%), 부산/울산/경남 거주자(51.2%), 개인소득 200~299만원 (49.1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10. 기부시 문제 해결 희망 단위(범위)

문) 귀하께서 기부를 하신다면, 그 돈이나 물품이 다음 중 어떤 단위의 문제해결에 주로 쓰여지기를 희망하십니까?

- 기부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는 문제로는 ‘내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’가 48.7%로 가장 높았으며, ‘국내 사회문제’가 34.6%, ‘나와 연고가 있는 공동체의 문제’가 12.4% 순으로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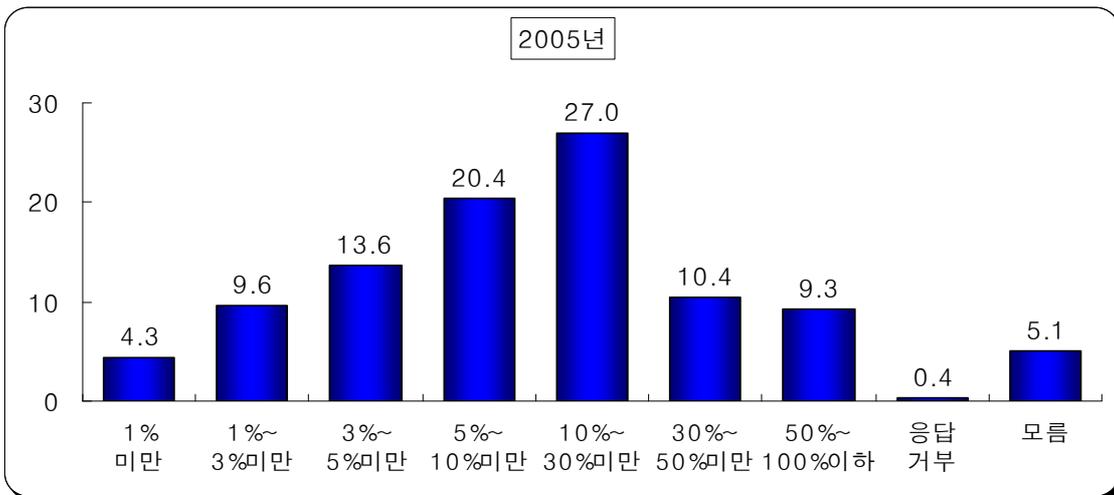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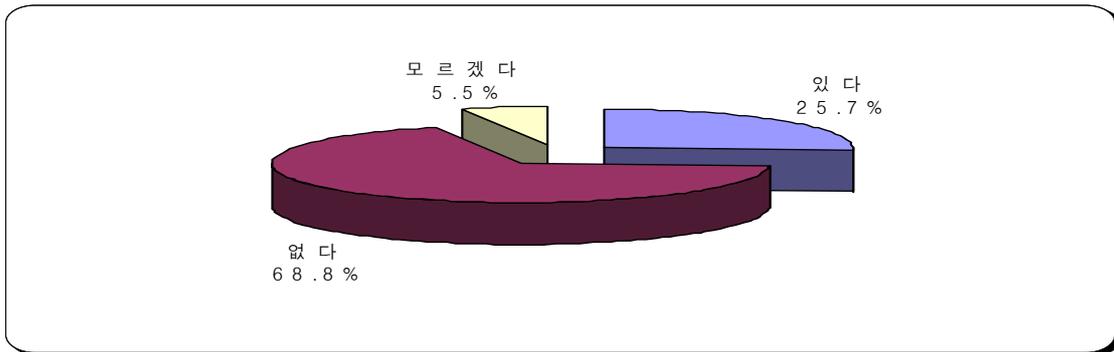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‘내가 거주하는 지역 사회의 문제’ 는 50대 이상(54.9%), 대구/경북(67.0%) 및 강원(68.3%), 중소도시 거주자(53.3%), 가구소득 100 ~ 199만원(56.9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- ▷ ‘국내의 사회문제’ 는 20대(63.2%), 30대(40.9%), 인천/경기(40.6%), 대도시 거주자(39.7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11. 유산 일부 기부 의향

문) 귀하께서는 유산의 일부를 단체/시설/기관에 기부하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?

- 유산의 일부를 기부할 의향에 대한 응답은 '있다' 가 25.7%, '없다' 는 응답이 68.8%로 나타남. 전체 유산의 어느 정도를 기부할 의향이 있는냐에 대해서는 '10%이상~30%미만' 이라는 응답이 27.0%로 가장 높았음(n=258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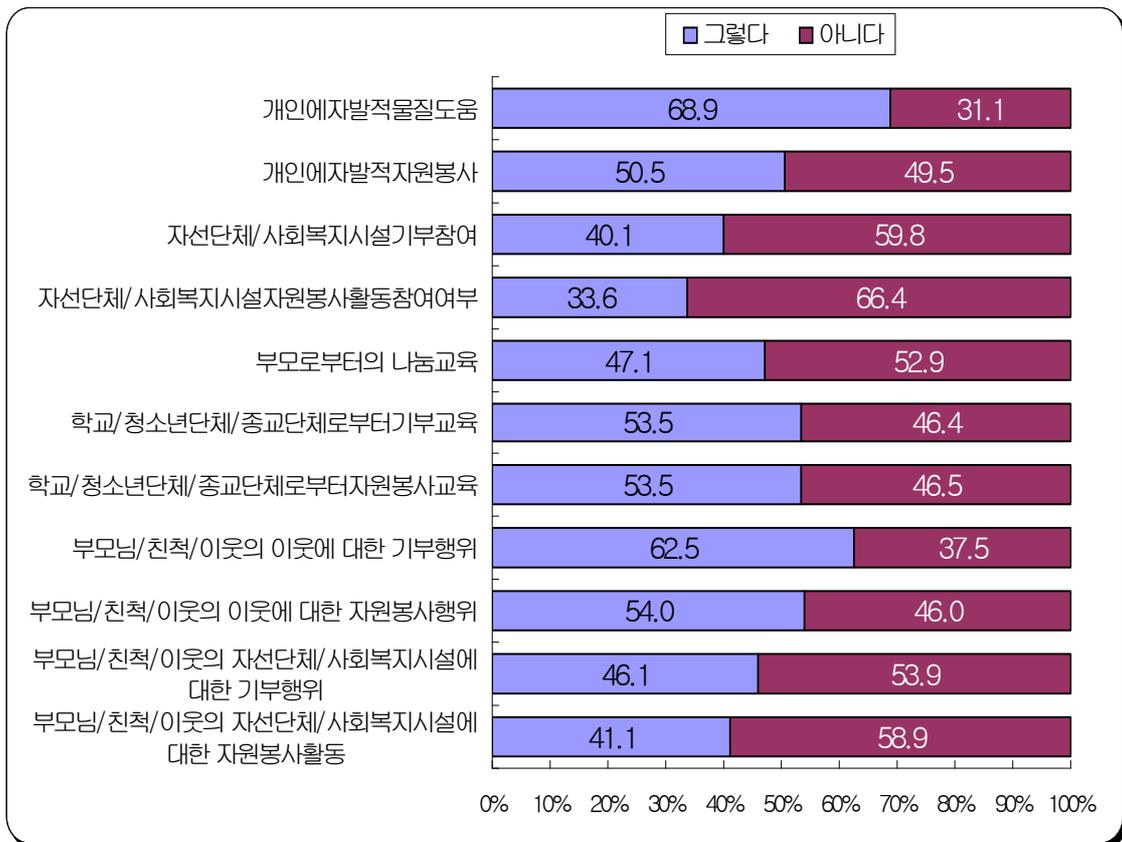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'있다' 는 응답은 30대(30.8%), 대재이상(31.4%), 화이트칼라(34.5%), 인천/경기(31.3%) 및 강원(51.7%) 거주자, 미혼자(32.4%), 기독교(37.6%), 개인소득 200만원 이상(31.4%),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(29.0%), 거주형태 전세(32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'없다' 가 상대적으로 높은 층은 50대 이상(78.2%), 중졸이하(82.6%), 블루칼라(77.0%), 부산/울산/경남(82.5%) 및 광주/전라(80.6%) 거주자, 기혼자(71.1%), 무신론자(73.6%), 개인소득 49만원 이하(74.2%), 거주형태 자가(70.6%)임.
- ▷ 전체 유산의 '10~30%미만' 을 기부할 의사가 있다는 층은 부산/울산/경남(48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.

12. 유/초/중/고등학교 시절 경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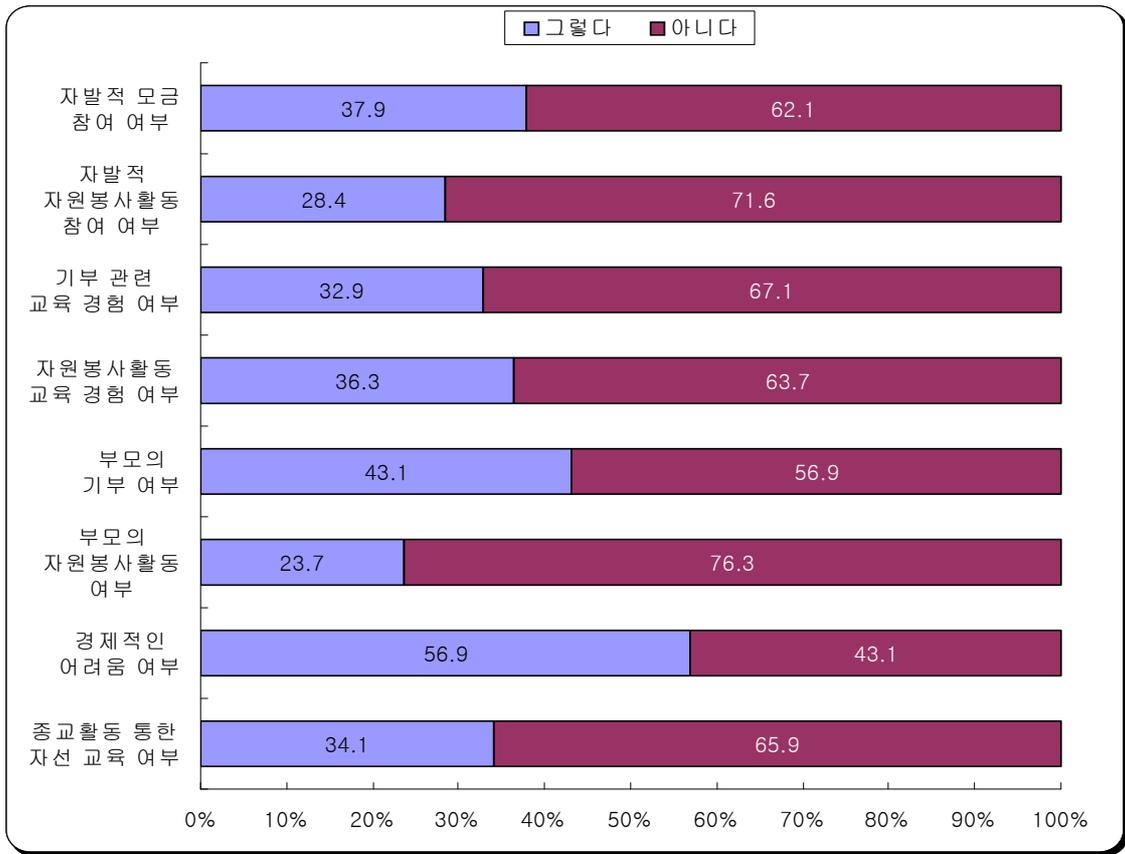
문) 귀하께서는 유/초/중/고등학교 시절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?

- 성장기에 자원봉사 및 기부에 대한 경험/교육 여부에 대하여 '개인에 자발적 물질 도움' 이 68.9%로 높았으며, '부모님/친척/이웃의 이웃에 대한 기부행위' 가 62.5%, '부모님/친척/이웃의 이웃에 대한 자원봉사 행위' 가 54.0% 순으로 응답자들이 경험여부가 높았음.



<2005년 성장기 경험 여부>

GIVING KOREA 2006



<2003년 성장기 경험 여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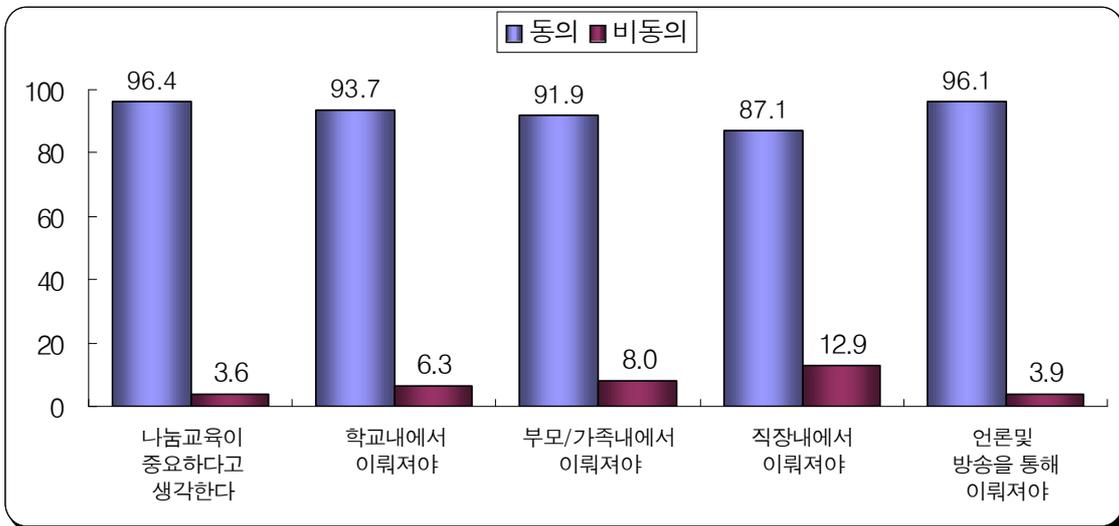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‘개인에 자발적 물질로 도움’ 은 30대(74.7%), 대재이상(73.4%), 화이트칼라(73.6%), 인천/경기(76.5%), 대도시 거주자(74.8%), 미혼자(75.5%), 기독교(80.6%),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(73.1%)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.
- ▷ ‘부모님/친척/이웃의 이웃에 대한 기부행위’ 는 대재이상(67.3%), 지역별로 인천/경기(68.1%), 대구/경북(72.5%), 광주/전라(73.1%) 거주자, 불교(68.1%)신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경험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.
- ▷ ‘부모님/친척/이웃의 이웃에 대한 자원봉사활동’ 의 경험은 대구/경북(69.7%), 기혼자(56.3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.

13. 나눔교육 동의 정도

문) 다음의 나눔교육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십니까?

- 나눔교육과 관련된 질문에서 대부분 '동의'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.
 - 나눔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'동의'가 96.4%였으며, 나눔교육이 이뤄져야 되는 방법은 '학교 내에서'가 93.7%, '부모/가족 내에서'가 91.9%, '직장 내에서'가 87.1%, '언론 및 방송을 통해서'가 96.1%로 나타남.
 - 응답의 보기를 '매우 동의하지 않는다', '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', '어느 정도 동의한다', '매우 동의한다'의 4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나, '동의하지 않는다'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'동의'와 '비동의'로 구분하여 도표화 하였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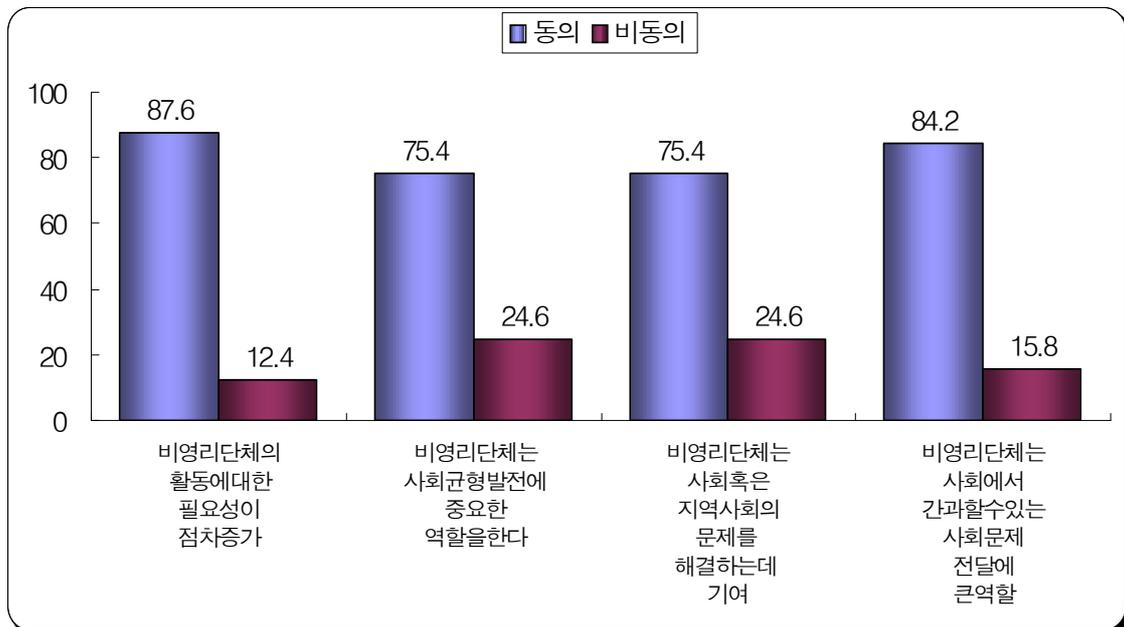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'나눔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' 는 40대(98.7%), 읍/면 거주자(99.5%)에서 상대적으로 '동의'의 비율이 높았음.
- ▷ '학교 내에서 이뤄져야한다' 는 40대(96.5%), 대재이상(95.6%) 층에서 상대적으로 '동의'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▷ '부모/가족 내에서 이뤄져야한다' 는 40대(95.2%), 화이트칼라(95.3%), 서울(95.9%), 인천/경기(95.6%), 광주/전라(97.2%),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(94.8%)에서 '동의'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- ▷ '직장 내에서 이뤄져야한다' 는 여성(89.2%), 40대(91.2%), 자영업(92.8%), 서울(91.3%), 기혼자(88.6) 층에서 상대적으로 '동의'가 높게 나타남.
- ▷ '언론 및 방송에서 이뤄져야한다' 는 가구형태 전세(99.0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14.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기여 및 역할에 대한 인식

문) 귀하께서는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- 나눔 실천을 전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‘비영리단체의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된다’ 는 87.6%, ‘비영리단체는 사회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’ 는 75.4%, ‘사회 전체 혹은 지역사회외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데 기여한다’ 는 75.4%, ‘사회에서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’ 는 84.2%가 ‘동의’ 하는 것으로 나타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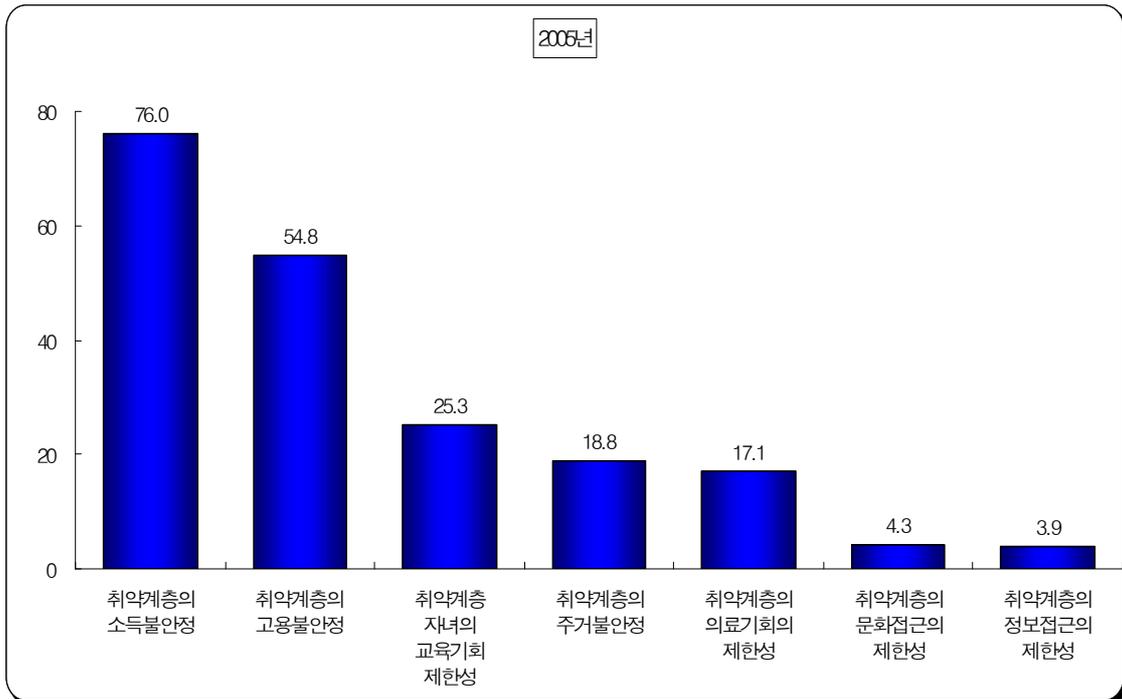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‘비영리단체의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된다’ 는 대구/경북(94.5%), 전세(92.3%)에서 상대적으로 ‘동의’ 가 높게 나타남.
- ▷ ‘비영리단체는 사회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’ 는 화이트칼라(81.3%), 인천/경기(83.5%), 대도시 거주자(79.0%), 기독교 신자(84.6%),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(80.6%)에서 상대적으로 ‘동의’ 하는 비율이 높았음.
- ▷ ‘비영리단체는 사회 전체 혹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’ 는 여성(78.7%), 인천/경기(80.9%), 대도시 거주자(78.7%), 가구소득 300만원 이상(78.6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- ▷ ‘비영리단체는 사회에서 간과되는 중요한 사회문제를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한다’ 는 인천/경기(88.2%), 대도시 거주자(87.0%)에서 높게 나타남.

15.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

문)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음 중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십니까?

- 현재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는 ‘취약계층의 소득불안정’ 이 76.0%로 가장 높았으며, ‘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’ 이 54.8%, ‘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성’ 이 25.3% 순으로 나타남(중복응답)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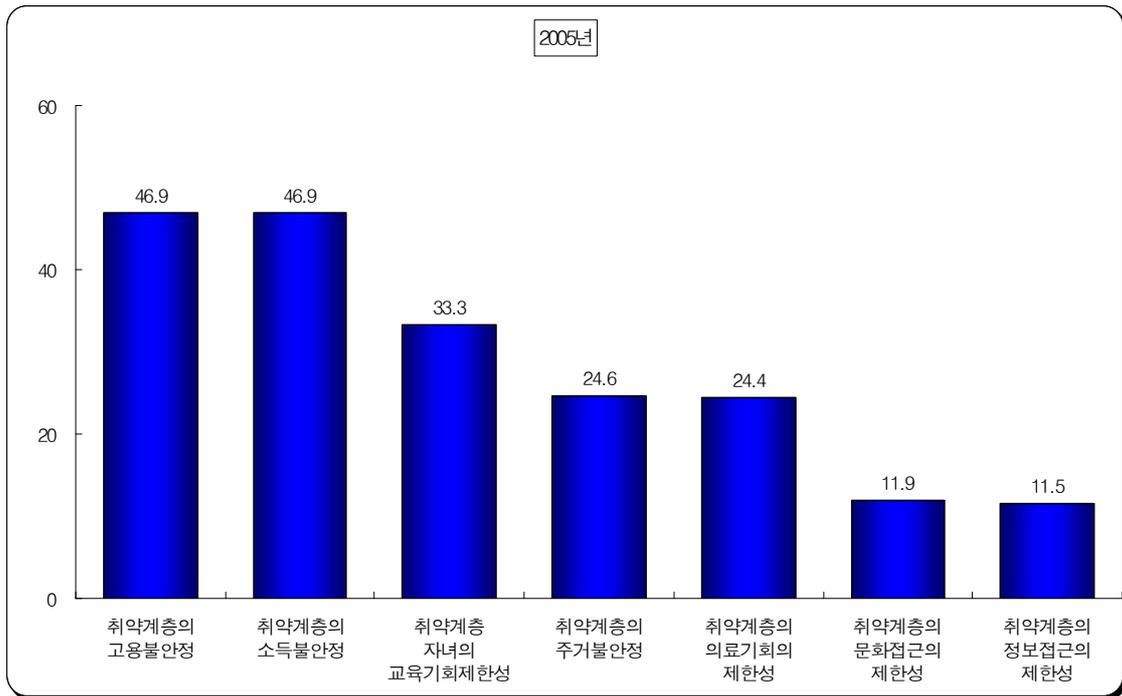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- ▷ ‘취약계층의 소득불안정’ 은 남성(78.7%), 대전/충청 거주자(85.4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‘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’ 은 화이트칼라(60.5%), 광주/전라 거주자(69.9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- ▷ ‘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성’ 은 서울(30.4%), 중소도시 거주자(29.4%)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
16. 민간이 참여(나눔실천)하여 해결이 필요한 문제

문) 귀하께서는 어떤 문제의 해결에 민간(시민, 기업, 종교기관)이 참여(나눔실천)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?

- 민간(시민, 기업, 종교기관)이 참여(나눔실천)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는 ‘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’ 과 ‘취약계층의 소득불안정’ 이 각각 46.9%로 가장 높았으며, ‘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성’ 이 33.3% 순으로 나타남.



◎ 인구사회적 특성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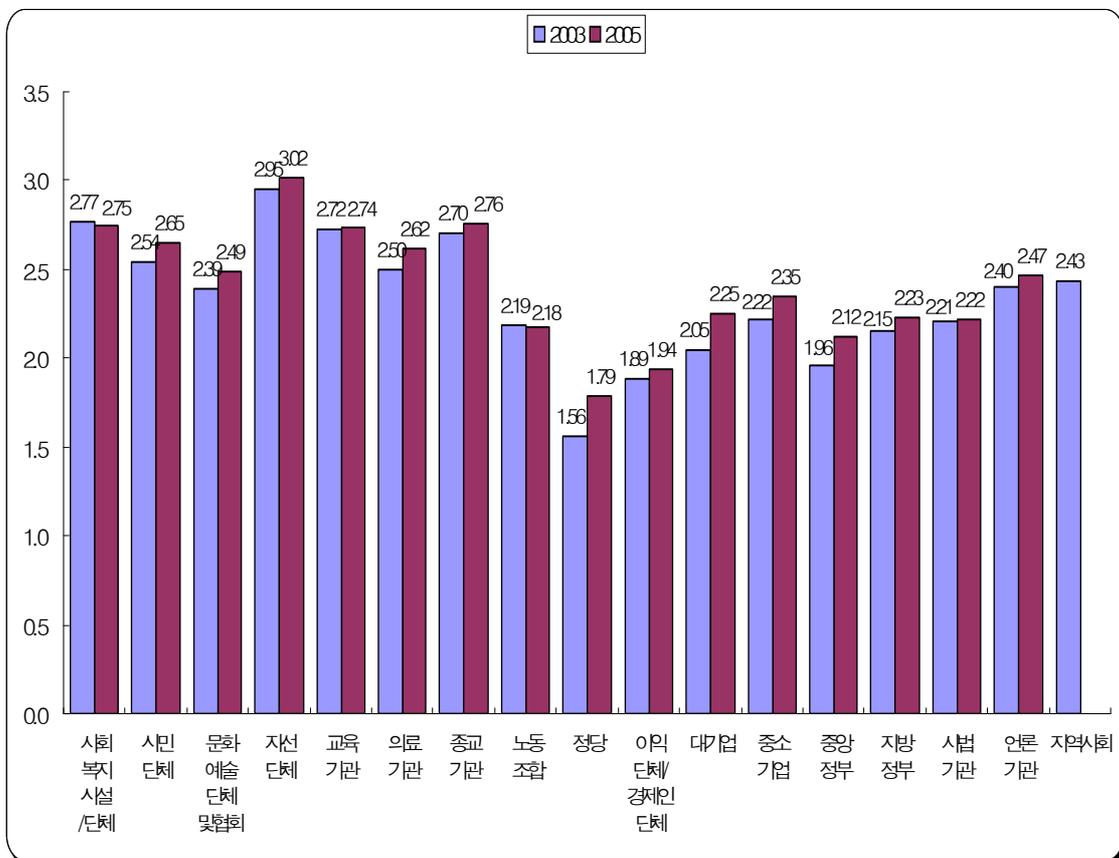
- ▷ ‘취약계층의 고용불안정’ 은 대구/경북(65.1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- ▷ ‘취약계층의 소득불안정’ 은 50대 이상(54.2%), 중졸이하(55.6%), 농/임/어업 종사자(76.2%), 주부(54.7%), 대구/경북(56.0%), 대전/충청(76.7%), 강원(70.0%), 읍/면(55.5%), 이혼/사별(65.5%), 불교신자(55.5%), 개인소득 49만원 이하(53.1%), 가구소득 99만원 이하(84.5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.
- ▷ ‘취약계층 자녀의 교육기회 제한성’ 은 서울(40.9%)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.

17. 시설/기관/단체별 신뢰도

문) 귀하께서는 다음 각각의 시설/기관/단체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?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? 아래 항목 각각에 대하여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.

- 시설/기관/단체별 신뢰도를 묻은 결과, ‘자선단체’가 4점 만점 중 3.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이어서 ‘종교기관’ (2.76점), ‘사회복지시설/단체’ (2.75), ‘교육기관’ (2.74점) 등의 순으로 나타남.

☞ 4점 만점 점수환산은 응답자의 응답이 “전혀 신뢰하지 않는다”면 1점, “신뢰하지 않는 편이다”면 2점, “신뢰하는 편이다”면 3점, “매우 신뢰한다”면 4점으로 전환한 후 평균한 값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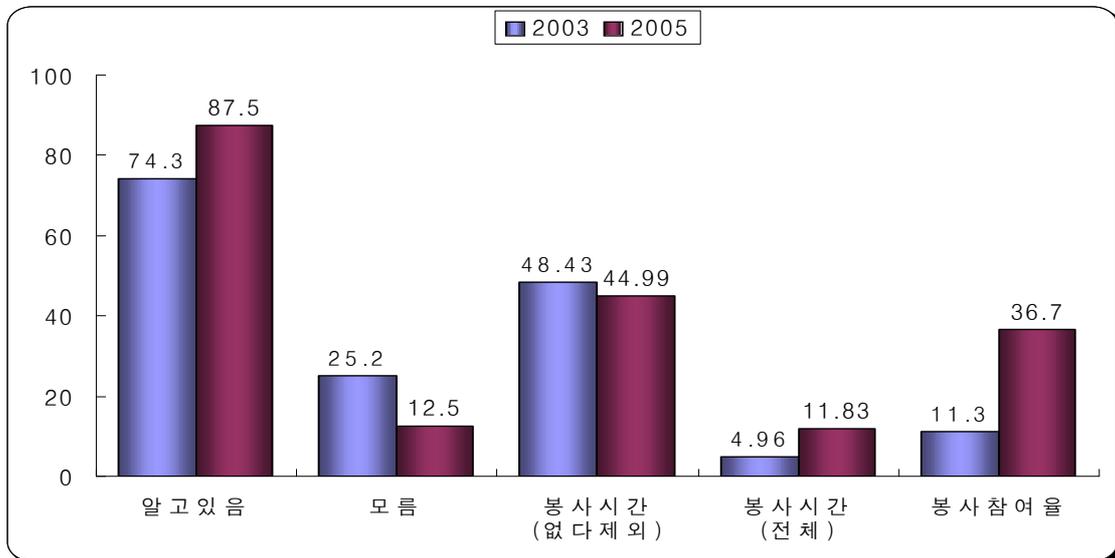


18. 2005년 배우자 자원봉사활동 시간

문) 귀하께서는 귀하의 배우자 분(남편 또는 부인)께서 작년 한해(2005년 1월~12월) [보기카드 2의 '①번~㉞번' 과 같은 곳에서] 자원봉사활동을 총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? '종교단체(교회/성당/절 등)를 위한 봉사활동' 은 자원봉사에 포함되지 않으니, 제외하고 생각해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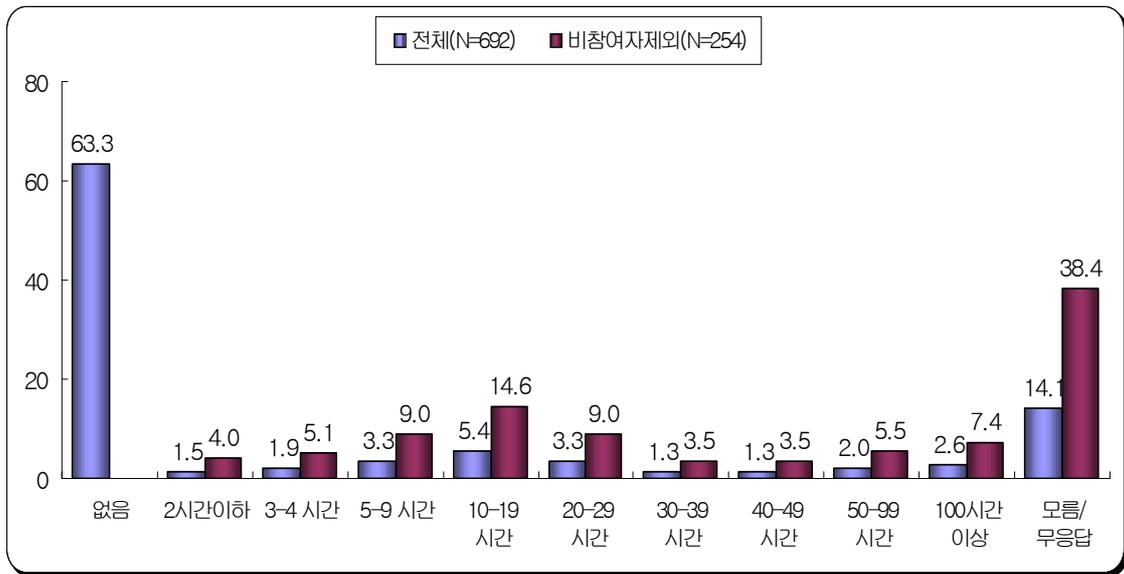
문) 귀하의 배우자 분(남편 또는 부인)께서는 작년 한해 자원봉사활동을 총 얼마나 하셨습니까? [보기카드 1]에서 '①-1번 종교단체(교회/성당/절 등)를 위한 봉사활동' 은 자원봉사에 포함되지 않으니, 제외하고 말씀해주세요.

- 기혼인 응답자 692명의 2005년 배우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인지율은 87.5%로 나타남 (n=692).
 - 지난 2003년 조사와 비교할 때, 배우자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지는 87.5%로 증가하였으며, 전체 봉사시간도 11.83시간으로 증가되었음.



〈그림〉 배우자 자원봉사활동

- 692명 응답자의 배우자 중 2005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비율 36.7%(254명)이었음(참여 안 함 : 63.3%). 이는 2003년 자원봉사활동 참여 비율 11.3%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음(참여 안 함 : 88.7%).
- '모름' 을 제외하고, 참여한 경우 '10~19시간' (14.6%)이 가장 높았음.
- 한편, 배우자 전체의 평균(n=692)은 "11.83시간" 으로, 참여한 배우자의 평균(n=261)은 "44.99시간" 으로 나타남. 이는 2003년 배우자 전체 평균 "4.96시간" 보다 증가하였으나, 참여한 배우자의 평균 시간은 "48.43시간" 보다 감소하였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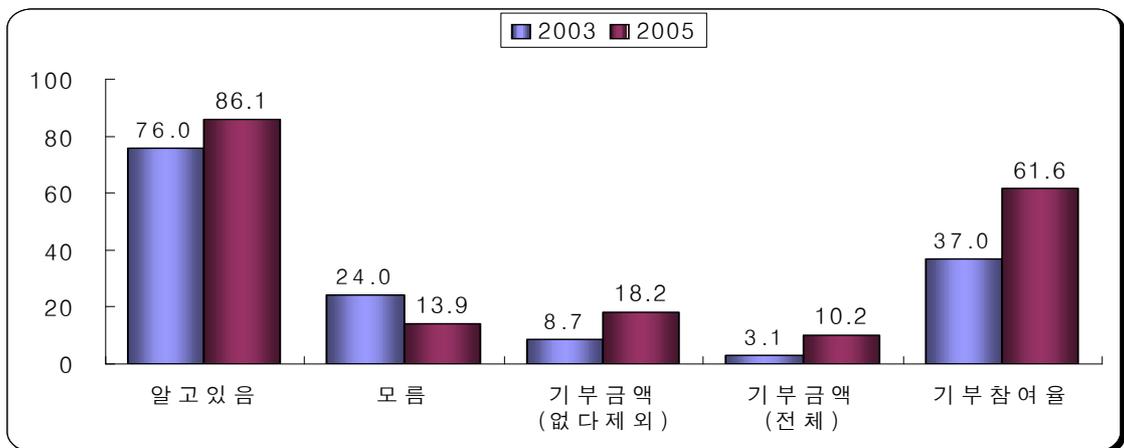
<그림> 배우자 자원봉사활동 시간

19. 2005년 배우자 기부 금액

문) 귀하께서는 귀하의 배우자 분(남편 또는 부인)께서 작년 한해(2005년 1월~12월) [보기카드 2의 '①번~ ㉔번' 과 같은 곳에서] 기부를 총 얼마나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? [보기카드 2]에서 '②-1번 종교단체(교회/성당/절 등)에 현금 및 보시' 는 기부에 포함되지 않으니, 제외하고 생각해주세요.

문) 귀하의 배우자 분(남편 또는 부인)께서는 작년 한해 기부를 총 얼마나 하셨습니까? [보기카드 2]에서 '②-1번 종교단체(교회/성당/절 등)에 현금 및 보시' 는 기부에 포함되지 않으니, 제외하고 말씀해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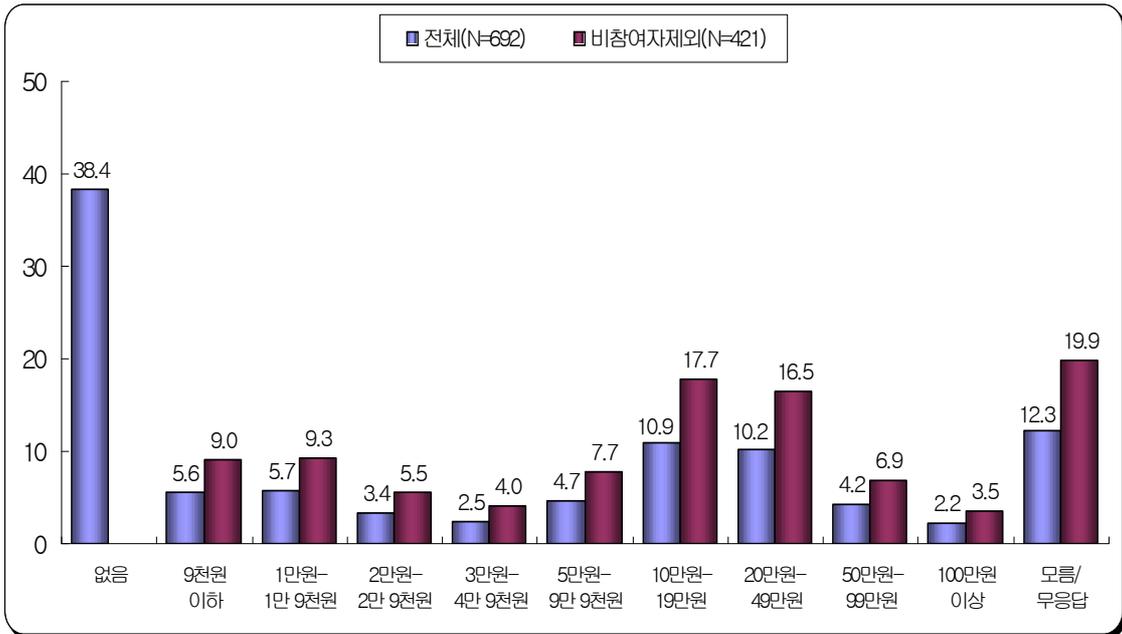
- 기혼인 응답자의 2005년 배우자의 기부 금액에 대한 인지율은 86.1%로 지난조사보다 10.1%포인트 증가하였음.(n=692).



<그림> 배우자 기부 금액

GIVING KOREA 2006

- 683명 응답자의 배우자 중 2005년 기부에 참여한 비율 61.6%(421명)이었음(참여 안 함 : 38.4%).
- 참여한 경우 ‘10만원~19만원’ (17.7%)이 가장 높았으며, ‘20만원~49만원’ (16.5%)이 두 번째로 높았음.
- 한편, 배우자 전체의 평균(n=683)은 “10만 2천원” 으로, 참여한 배우자의 평균(n=421)은 “18만2천원” 으로 나타남.



〈그림〉 배우자 기부 금액